



時計塔

SIGETOP



2008년 10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5권 4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尹孝允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盧在煥 李惟贊
徐仁錫 李元澤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회장단 활동보고



- 취임한지 3개월이 흘러갔습니다. 미시간 서울의대동창 회장단이 미시간의 미시간 KAMA 회장단을 겸하게 되어 그간 우리 임원진은 2009년 Annual Convention 준비 외에도 이곳 지역동창회와 KAMA 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3개월이 지나갔지만, 사회적으로 불매 너무나 큰 변동들이 일어나 아주 오래된 느낌도 듭니다. 순식간에 밀어닥친 global financial crisis로 인해 집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평생 모아 놓았던 investment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으니 사회적 불안이 더 고조되리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문되시는 여러분들은 더욱 평안하시고, 또 더욱 persevere 하실줄 믿습니다. 좀 여건이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동창회를 위해 더욱 더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Dolley Parton이 한 말이 생각합니다. "If you want to see a rainbow, You must first put up with the rain."

- 2009년도 컨벤션 장소 날짜는 아시다시피 확정되었으며 골프코스과 non scientific program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 부인들께서 Ritz Carlton Culinary class에 시범 참가를 최근에 했습니다.

- 또 이번 시계탑에 광고했듯이 scientific session과 spouse program에 참석하실 연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young alumni와 동문 자제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함춘대상후보로 유태준 (테네시 의과대학 교수) 동문을 추천했으며, 함춘의학상 후보로는 김의신(M.D. Anderson, University of Texas)동문을 추천해 서류 절차를 마쳤습니다.

- 또 Scholarship Committee와 Green Project Committee의 chair 되시는 오용호 동문과 서인석 동문의 추천에 의해 미국내 동문자제 다섯분, 서울의대분과 4학년 학생 다섯분을 선정해 scholarship을 주기로 정했습니다. 3-40년전 우리가 의과대학을 다닐때는 업무도 못했던 clinical clerkship을 미국의 유명한 의료기관 (such as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Columbia University, Temple University)에서 할 수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동아리(CMF) MEXIM(more experience in medicine)이란 단체와 우리 Green Project Committee 서인석 위원장과의 연결이 잘되어 있음을 증명하며, 인터넷의 탄생으로 인해 전세계가 한나라와 같이 변화가는 globalization의 한 예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시한번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모교를 위해 봉사하신다는 정신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동창회의 각 지부회장들과 학년대표를 합쳐 Membership Activation Committee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동창회 활성화의 한 방법도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것은 우리 동문들이 선후배를 가리기전에 서로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양보할 수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common interests를 찾아 자주 만나 친교를 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Annual Convention이 끝나면 북미시간으로 post convention golfing trip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대표를 통해 서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 또 이번에 Silver Project Committee (한기현 위원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유럽 5개국 여행(2009년 4월 28일 ~ 5월 9일)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서로 친교를 하며 우정도 나눌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지상으로 인사/보고 말씀을 드릴때까지 모든 동문과 그 가족들의 평안을 빕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회비도 내 주시고 특별히 도네이손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회장 윤효윤(69)



차기회장 이성춘(70) 동문 선출

Nominating Committee(Chair, 조동준)는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 2009-2010년도 회장에 이성춘(70)동문을 선출했다. 이성춘 동문은 남가주 지역 동창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한 바 있다.

고 송관호 동문 유족 장학기금 십만불 쾌척

지난 8월 12일 별세한 고 송관호(64) 동문 유가족이 서울의대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고인의 뜻을 기려, 서울의대 신입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한 명 등 약간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회사하겠다고 밝혔다.

동유럽 5개국 관광단 모집

지난번 시계탑에 언급한대로 Silver Project Committee는 내년 봄에 동유럽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일정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뉴욕시 아시아 여행을 통해 동유럽 중 많이 방문하지 않은 곳을 선택하였고, 가능하면 매일 집을 싸지 않도록 하였으나 지형과 거리 관계로 나흘만 한 도시에서 이틀을 묶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가능한한 grade 시켰다고 하니 가격은 당시 유료 환율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4월 29일(화)에 떠나 부다페스트에서 5월 9일(토)에 돌아오는 예정입니다. 5월 중순 전인 off season이 되고, Delta Air가 가격이 가장 적당하여 가격이 조금 낮다고 합니다. 친한 분들, 멀리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동기들도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는 여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히 아시기 원하시면 Asia Travel Mrs. Chang (212) 685-266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Silver Committee 한기현, 이흥빈, 추재욱

동유럽 독일,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여행일정

2009년 4월 30일: 뉴욕 출발 기내에서 1박, 5월 2일: 베를린 도착 시내 관광, 3일: 동독 지역 드레스덴으로 이동후 시내관광, 4일: 체코 프라하로 이동, 5일: 케스키크롬프프로 이동하여 중세유적지 관광, 6일: 프라하 시내 관광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벨츠로 이동, 7일: 폴란드에서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관광, 8일: 비엘리치카로 이동하여 세계최대 소금광산 등을 관광, 9일: 동유럽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자코파네로 이동 관광 후 타트라로 이동, 10일: 부다페스트 관광후 다뉴브 유람선 승선, 11일: 부다 왕궁 등을 관광하고 로마시대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세체니 온천에서 온천욕, 12일: 부다페스트 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

- 자세한 일정은 아시아 여행사에서 발송될 일정표 참조 하십시오.

Invitation of Speakers for the 2009 Scientific Convention

July 4 (Sat) ~ 8(Wed), 2009
Ritz Carlton Hotel
Dearborn, Michigan

2009년도 학술대회를 빛내주실 연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과 동문자녀들, 또 서울의대동문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연사이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Non-Scientific Session에도 Finance, Entertainment, Law, Food & Wine, Technology, Computer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나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모시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창회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미주동창회 학술준비위원회

2008-2009제 1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08년 10월 4일(토요일) 오후 6시
 장소: 윤효윤 회장님 자택, 2741 Turtle Lake Drive, Bloomfield Hills, MI 48302
 참석자: 조명호(62) 이한중(65) 황규정(65) 조의열(66) 이태석(67) 문광재(68) 윤효윤(69) 장현식(70) 강태수(71) 김유식(71) 오동환(71) 오상현(71) 장연웅(78)
 Proxy: 노용면(55) 이만택(58) 이운순(58) 김병석(59) 김은섭(59) 이재승(61) 한혜원(61) 이상무(62) 김태웅(63) 한기현(63) 이우찬(64) 이홍표(64) 조동준(64) 한태진(64) 최영자(66) 이근웅(67) 곽승용(71) 권영조(72) 오용호(72) 황용규(72) 문대욱(73) 서인석(73)

1. 오동환 총무의 성원 (44/52) 보고 (총 52명중 18명, 8명 겸직과 25 Proxy) 와 개회 선언.
2. 본 회의 전에 永眠하신 전회장 송관호 선생님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었음.
3. 2007-2008 제2차 이사회 초록을 수정없이 동의, 재청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4. 지난 회의록의 New Business에 올려있는 최준희, 조동준 전회장님들의 건의 사항을 토론했음.
 - a. 함춘의학상에 대한 최준희 전회장님의 건의에 대한 전번 이사회의 결정을 재 확인.
 - b. 함춘의학상건에 관련되어, 1990년대 초기에 전 미주회원이 fund raising 을 하여 본교로 보낸 fund(\$500,000 /1,180,000)의 missing record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음. 더 늦기전에 더 많은 information을 추구하기로 결정.
 - c. 조동준 전회장님의 건의를 토론했후 다음과 같이 결정.
 - 1) Annual special member award: 그때 그때의 회장단에 맡기기로 하였음
 - 2) 평생 회원 자격증 여건: 토의 후 부결 되었음.
 - 3) 회장임기 2년, 2년에 한번씩 컨벤션: 토의 후 부결되었음.
5. 윤효윤 회장보고
 - a. 각 임원들의 Support를 감사함
 - b. 지난 여름에 이곳 미시간에서 동창회 골프대회가 2번 있었고, 서울의대 동창회를 주축으로 KAMA 골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보고.
 - c. 함춘의학상 후보로 MD Anderson 의 김의신 동문을 추천한것을 보고.
 - d. 함춘대상에 University of Tennessee 의 유태준 동문을 후보로 추천한 것을 보고.
 - e. 내년 7월 이곳 미시간에서 있을 Annual Convention의 준비 상황을 보고. 임원들과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부탁.
6. 총무 (오동환) 보고: 서울 대학교 병원 기획조정실 대외 전략팀 (최희영)에서, 서울 대학교 로스앤젤스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e-mail을 보내음. 미주 동창들의 참여를 부탁한다는 내용임. 남가주 지부회장 김성환 동문께 연락할것을 결정.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최희영 <chy@snuh.org>씨께 연락 바람.
7. 재무 (장연웅) 보고:

- Financial report를 제출 (별첨): 9월 30일 현재 total revenue는 \$47,375, total expenditure는 \$6,441 잔액은 \$40,934 임, 리포트를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가결함.
8. Committee reports
 - 1) Finance(오상현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2) Scholarship (오용호 위원장)- 지난 8월 9일 뉴욕중앙일보에 scholarship에 대한 광고를 해서(LA 중앙일보는 광고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 19명의 지원자중, 스칼라십 커뮤니티와 그린프로젝트 커뮤니티가 합동 회의를해서 다음 다섯명을 추천 하였음:
 - Nicholas Ahn, Edward Hong, Jennifer Hong, Eunsik Jung and Eileen Shim. 한국의 지원자 명단은 아직 받지를 못 하여서, 추천자가 없음. 차후에 결정하기로 함. 동의와 재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
 - 3) Fund raising(권영조 위원장)- 불참, 보고 사항 없음.
 - 4) Scholarship Fund Management(이명희 위원장)- 불참, 보고 사항 없음.
 - 5) Research and Fellowship(한혜원위원장)- 금년 함춘의학상은 MD Anderson의 김의신 동문을 추천하였음을 보고. 동의와 재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
 - 6) Green project(서인석 위원장) - 7월 1일 첫 모임에는 MEXIM 현회장 윤찬군과 만나, elective course를 찾는 어려움 \$1,000~\$3,000 tuition, 하숙방을 구하는 어려움 등등 고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이들을 돕기 위해 SNUCMAA 회원들이 faculty로 있는10여개 병원 리스트를 작성하여 모교에 알려줄 것을 약속하였음.
 - 10월 1일 두번째 모임(Scholarship Committee와 함께)에서는 young 멤버(74년 이후 졸업)들의 소극적인 동창회 참여 이유 및 해결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음. 이 사업은 우리 동창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로, Green Project Committee만으로 풀어가기에는 박차고 회장단들께서 장기 프로젝트(Green Project, Silver Project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9월말 현재, 회비납부와 함께 들어온 \$1,655과 고 박태진(62) 선배님 메모리얼 펀드로 모은 \$1,675의 기금이 모금이 되었음. 현회장단께서 더욱 많은 fund-raising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7) Publication(김병석 위원장)- 전 위원장 송관호 선생의 부음을 알립. Dr. 송의 replacement를 구하고 있는 중.
 - 10월달 시계탑은 전체 이사회 회의록이 준비 되는대로 발행예정.
 - 8) By-Laws Committee(노용면 위원장)- 보고 사항없음.
 - 9) Nominating Committee(최영자 위원장)- 불참, 보고 사항 없음.
 - 10) Office Management Committee(곽승용 위원장)- 불참, 보고 사항 없음.
 - 11) Silver project Committee(한기현 위원장)- 2009년 4월 28일(화)부터 5월9일(토)까지 11박 12일로 동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있음. Itinerary will include Berlin, Dresden, Prague, Krakow and Budapest. 경비는 \$2,750과 그의 팁, 제반경비 약 \$270 정도. 많은 참석을 바람.
 - 12) Charity Committee(황용규 위원장)- 불참, 보고 사항 없음.
 - 13) 2009 Convention Committee(이태석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많은 참가와 도네이션을 바람. 이태석 위원장과 이한중 전회장님이 각각 \$1,000 도네이션을 약속 하였음.
 - 14) 2009 Convention Scientific Chair(장현식 위원장)- 24명의 강사가 필요함. Academic 한것보다는 좀더 practical하고 common interest가 있는 subject를 택하도록 구상중. 토픽당 30분 쯤으로 예정중. 강사에게는 honorarium이 없음을 알립.
 - 15) Counselor(이한중)- 보고 사항 없음.
 - 16) Web site - 이번 이사회에서 동창회 Web site SNUCMAA.US 활성화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음. Convention brochure 및 시계탑을 web site에 올릴것임.
 9. New Business:
 - a. 윤효윤 회장: He is very concerned about low alumni member participation in alumni activities. We have only @500 due paying members and @100 annual convention participating members. 많은 멤버들의 active한 참여를 위해서, Membership Activation Committee(MAC)의 구성을 건의 하였음. Executive members, 각 지부의 회장들과 각 학년 대표로 구성된 MAC를 만들어 전체 동창회의 활성화를 제언 하였음.
 - b. 장연웅 재무: 인상되는 utility cost를 감안해서, Alumni office의 utility reimbursement의 인상을 건의. 만장일치로 동의 가결함
 - c. 조명호 동문: 7월 연례 컨벤션을 성공리에 개최 하도록 미시간 동문들의 Active한 참여를 권고. 내년 초에 연례 컨벤션을 후원하기 위한 미시간 동문들의 모임을 제의. 만장일치로 가결됨.
- 오후 9시 15분에 폐회 - 총무 오동환 보고

남가주 지부소식

총무선정: 그동안 공식으로 있던 총무에 미국 전역을 섭렵하고 드디어 남가주에 정착한 조형기(90, 마취과) 동문이 임명됨. 팔방미인이다가 정열과 순발력이 탁월한 조동문을 맞이해서 남가주 지부에서는 향후 10년간 총무직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임.

남가주 한미 의사회 회장: 2009년도 회장에 69년도 졸업 김홍서 동문이 선출되어 한인의사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될것 임. 많은 동문들의 협조를 부탁함.

춘계 골프대회: 남가주지부 춘계골프대회가 지난 4월 27일 Los Serranos Golf & C.C.에서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영예의 수상자는 남자: 1등: 홍수웅(65) 2등: 곽창범(72) Longest; 이창우(71) Closest; 전영균(65), 여자: 1등: Mrs. 이준식(67) 2등: Mrs. 홍수웅(65) Longest; Mrs. 김영철(71) Closest; Mrs. 이준우(61) 골프 친목 대회 끝에는 한식집(용가네)에서 푸짐한 갈비와 맛갈나는 한식을 동문들과 같이 나누며 정이 넘치는 저녁 시간을 가졌음.

디즈니 홀 서울음대 합창대회: 제3회 남가주 총 동창회 합창단 공연이 지난 8월 1일 Walt Disney Concert Hall 에서 열렸다. 성황리에 어우러진 합창과 독창 그리고 아름다운 중창이 있었는데 18명 참가했다.

선 후배 친교의밤: 선후배 친교의 밤이 지난 8월 23일 Oxford Palace Hotel, Dynasty Hall에서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팔순: 김순옥 박종식 홍사능(52) 노영자 이동식, 이은희(54)

칠순: 김태웅, 권영조, 조한원(63), 이홍표, 김선원, 전희택(64)
 육순: 곽용규(73) 오동석, (72)나두섭(73)
 선 후배가 화기에애한 가운데 순 한국식으로 팔순, 칠순, 육순의 잔치를 동창회에서 벌렸다. 특히 이영남 총사위가 화관무, 부채춤, 태평무, 장구춤, 한량무, 입춤, 즉흥무를 화사하게 추어 잔치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았으며 떡 케익은 1949년에 졸업하신 고영철(49) 김지익(49) 선배님이 잘랐다.



추계 대회 소개 (앞으로 있을 추계골프 대회)
 추계골프대회가 오는 10월 26일(일) 오전 11시에 Los Serranos Golf & C.C.에서 있을 예정이다. 되도록 많은 동문이 참여되기를 바라며 예약은 되도록 빨리해주시되 적어도 2주 전까지 해 주시면 골프장에 예약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 같아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비, 헌금하신 동문 명단

2008년 10월 10일 현재

2008-2009 Donation List

노용면(56) 500	서상철(56) 25	정태진(59) 25	장성환(61) 500	황현상(61) 75
조명호(62) 75	임춘수(63) 175	왕규현(63) 100	구경회(65) 125	이한중(65) 100
이근웅(67) 100	정한규(69) 100	윤효윤(69) 375	서상현(71) 75	조경호(72) 50
방병기(73) 125	김자역(71) 125			합계 \$ 2,350

2008-2009 Green Project Fund List

김신형(50) 500	최창송(58) 50	한기현(63) 100	민발식(66) 100	차재철(68) 75
윤효윤(69)1000	서인석(73) 100			합계 \$ 1,925

박태진(62) 메모리얼 펀드 - Green Project

조 용(62) 200	조명호(62) 300	정정수(62) 200	김석식(62) 200	권익현(62) 200
박종건(62) 300	오태요(62) 200	Monlinsky Steve 75		합계 \$ 1,675

2007-2008 Charity Fund List

반용균(59) 100	김영기(61) 100	조한원(63) 100	윤효윤(69) 500	합계 \$ 800
-------------	-------------	-------------	-------------	-----------

2008-2009 Scholarship Fund List

Mrs. 윤좌병 1,000				합계 \$ 1,000
----------------	--	--	--	-------------

회비 납부하신 동문 명단

1948 한용현 오동렬	1949 김지익 고영철 이형모
1950 주 일 나수섭	1951 최영수 이상하 박준홍
1952 김호연 김정준 박종식	1953 정약훈 김형건 이상봉
1955 박병원 노용면	
1956 조동립 김신형 박상기 신명수 서상철	

1957 정진목 정구영 정희영 유상환 임종원 오세근 윤 찬	
1958 최병두 최창송 한영수 김기태 김백년 김수산 김시한 이장섭 이동목 이종용	
이종국 이만택 이운순 임영신 배영섭 이상설 유지열	
1959 반용균 최태한 최종진 최혜숙 최용천 정병욱 정태진 한성업 한달수 임낙중	
김교안 김용덕 이교락 이원호 박선용 박형돈 나길진 심충섭 신한수 신영철	
1960 한성수 김택경 김영욱 이효빈 이덕송 이순환 박춘명 임필순 엽극용	
1961 안창현 장성환 최지원 최용성 정철용 황현상 김영철 김영기 이한수 이회백	
이희경 이재두 박준환 손기용 서휴열 양명교	
1962 장항순 구정울 조명호 정정수 김호균 김석식 권익현 이상복 이상무 이석우	
이용길 남성희 오태요 이경욱 이영웅 여천기 송영두	
1963 조열하 조한원 추재욱 신경호 김태형 한광수 한기현 김택수 김충열 김현철	
김정일 김승태 김태웅 김주승 고영희 이재명 이종두 이기환 이능석 이병준	
이승현 이범세 마동일 노인규 임춘수 신영규 송용덕 왕규현 양찬기 윤영욱	
1964 안연승 차용만 최준희 한태진 홍선경 전희택 조동준 정유석 김태환 이홍표	
이광신 유광현 임대목 오덕경 박한영 이종오 이유찬 양문택 유 강	
1965 채도경 조성구 정길화 황규정 강길원 구경회 이범석 이중희 이한중 이한승	
민경탁 박수안 이재진 서좌일	
1966 장한교 조충열 조관상 최순채 정양수 한일성 허서룡 조의열 김충규 김의신	
김진수 김우신 김용재 이종현 이성근 민발식 박용길 노재선	
1967 최승웅 전영성 김성철 김태웅 김영곤 이준식 이근웅 이민우 유진일 육태식	
1968 차재철 홍광신 김영남 임공세 문광재 서윤석 서영일 황훈규	
1969 최종일 정한규 김병오 김중권 김재욱 김홍서 이충호 임용규 송기인 송용재	
서 램 엄규동 윤효윤	
1970 방준재 조영갑 최원일 박승식 노승국 이정길	
1971 배성호 조세진 홍성진 강창홍 강유구 김창구 김효순 김일영 고기영 곽승용	
이남수 이성길 이원택 오상현 노재홍 송창기 서상현	
1972 장병호 조경호 최인섭 정균희 김재석 김광호 이신재 석창호	
1973 방병기 나두섭 문대욱 임준형 서인석 심완섭	
1974 최태식 김웅진 권철수 이흥재	
1975 전경배 한 일 김자역 김원정 박인영	
1976 한승신 김정아	1981 최선희 박범열
1983 심인보	합계: \$

사회봉사

My Medical Mission Story

정 철 용(61, 텍사스)



나는 2007년 10월 13일 부터 20 일 까지 도미니칸 공화국의 작은 도시인 San Juan에 가서 의료 선교에 참가했다. 이 글은 나의 의료활동에

대해 일기식으로 적은 기록이다. 13일에 미국을 떠나 20일에 귀국하였으나 실제로 일한 것은 만 나흘 밖에 되지 않았다.

도미니칸 공화국은 이번이 두 번째 가는 의료봉사 여행이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Solid Rock Mission이 주관하는 의료 선교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2006년 10월에 처음으로 도미니칸 공화국에 갔을 때는 씨애플 근처에 본부를 둔 Children of the Nations라는 미션 그룹하고 같이 갔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활동하는 현장에 직접 병원을 세우고 미국에서 의사들을 파견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의료선교를 한다. 또한 그들은 가난한 Haitian refugees나 이민자가 주로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학교도 세워 교육 선교에도 많은 힘을 들인다.

하이티는 도미니칸 공화국보다 더 가난하여 많은 하이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일 자리를 찾아와 많은 하이티 사람들이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간 병원은 주로 가난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와 수술을 한다. 이 병원에서 활동하는 미국의사는 도미니칸 공화국정부의 허가없이 마음대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

내가 자주 선교단체를 바꾸고 봉사를 옮기는 이유가 있다. 수술 후에 경과를 지켜볼 수 있는 로칼 이비인후과 의사와 같이 수술하여 수술 후의 경과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봉사자에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페루에서는 그 곳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와 같이 수술하며 의견도 나누어 내가 수술하는것을 보여주니 그 의사가 배워서 앞으로 새로운 환자를 수술하는데 도움도 되고 나와 같이 수술하였으니 수술 경과도 지켜볼 수 있으니 내가 한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경우 많은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도 하고 돌아오나 수술 경과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이비인후과 잡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Solid Rock Group 의료 선교단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도미니칸 공화국에 가는 길은 멀고 지루했다.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의료 선교에 경험이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인 Dr. Lynn Hughes와 Dr. Baugh는 나에게 여러가지 충고를 하면서 마이애미 공항은 꼭 피하라고 당부했으나 그 충고대로 여정을 못 쫓았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탄 비행기는 마이애미 공항에서 두 시간 반이나 늦게 출발했다. 미국으로 돌아 올 때는 공항에 내려서 입국 수속과 세관 수속으로 두 시간 반을 허비한 후에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 탑승구에 도착했다.

내가 탄 비행기가 산타 도밍고 공항에 두 시간 반이나 늦게 도착하니 Rod Nafziger가 기다리고 있어 매우 반가웠다. 그리고 우리는 공항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목적지인 San Juan에 4시간 후에 도착했다.

Rod는 오하이오주 출신 선교사로 5년간 이 나라에 부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18개 객실이 있는 숙소의 책임자로 미국서 온 봉사자들을 위하여 식사 뿐만 아니라 교통 편리 등 손님들이 필요한 모든 일을 도맡아 책임지고 있다. 이 곳을 찾는 봉사자는 년 800명으로 여러 분야에서 봉사를 한다.

나와 같이 간 봉사단은 일리노이 Peoria의 한 교회 신도 14명과 의사로는 나 하나로 구성되었다. 피오리어 교회는 San Juan에 한 교회건물을 건축중 이었으며 매달 다른 봉사자들이 교대로 이 곳을 방문하여 각각 자기들이 맡은 일들을 한다. 나와 같이 간 봉사자들은 마루에 씨멘트를 붙는 일로 왔다고 했다. Solid Rock Mission은 자체 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까지 본 어느 선교병원 보다 시설이 좋았다.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가니 수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날 나는 총 56명의 환자를 8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진찰하며 내가 수술해야 할 환자를 선별했다.

처음 계획으로는 금요일 까지 모든 수술을 마치고 다음 날 토요일에 미국으로 출발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일리노이주에서 온 건축공사 선교단원들이 금요일은 쉬겠다고 일정을 변경하여 뜻하지 않게 나도 그들 일정에 따라 봉사 일정을 앞당길 수 밖에 없었다.

도미니칸 공화국은 교통편이 매우 좋지 않은 편이라 건축공사 일꾼들과 같이 행동하여 출국하기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들이 금요일에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나도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였다.

화요일 부터 목요일 까지 22건을 수술했는데 대부분이 tonsillectomy와 작은 수의 tube과 release of tongue tie와 removal of nasal polyp 수술이였다. 그러면서 간간히 환자 열명을 진찰했다. 수술실 설비가 잘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로칼 마취의사도 기술이 좋았고 간호사들도 만족스러웠다.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어지러웠다. 너무 어지러워 예정대로 수술을 할 것인가 망서리며 침대에 누워서 30분 있으니 기분이 조금 좋아져서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 여섯 건을 하니 기운이 없고 다시 어지러워져 숙소로 돌아 갔다. 오후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서 쉬었다.

금요일 아침 일어나니 전 날과 같이 또 어지러웠으나 잠시 후에 기분이 좋아져 다른 봉사자들과 리조트 호텔

로 같이 떠났다. 왜 어지러워졌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 날 밤 리조트 호텔에서 다음 날 아침 또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여 밤 10시 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잠을 청했다. 다음날 일어나니 어지럽지 않고 기분이 좋았다.

집에 돌아온 다음날 아침에도 기분이 좋았다. 아마 말라리아나 뎅구병 예방으로 모기약을 너무 많이 뿌린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돌아와서는 한번도 어지럽지 않았으니 모기약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계획한 대로 수술을 더 못 한 것이 아쉽기만 했다.

이 병원에서는 로칼 이비인후과 의사와는 접촉이 없었고 3일 동안에 22명의 환자를 혼자 수술하고 오니 수술 경과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병원에 두 번 전화를 걸어 환자들의 수술 경과에 대해 물어 봤다.

San Juan에서도 로칼 이비인후과 의사와 수술을 같이 못해 수술 경과에 대해서 걱정은 했지만 다시 가고 싶다고 선교본부에 연락을 하면서 숙소 변경이나 모기약을 덜 사용할 것을 부탁 했는데 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다시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었다.

Solid Rock Mission이 주관하는 San Juan 의료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게 연락을 하면 여러가지 정보를 줄 수 있다. 의료봉사 숙소를 책임지고 있는 Rod and Sandy Nafziger는 봉사자들에게 매우 친절했으며 특히 나는 많은 도움을 받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 까지 의료선교로 여러 곳을 갔으나 그 고장 관광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이번에는 산타도밍고 시내 관광을 하며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도 구경했다. 그 곳에 있는 중남미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는 성당 건물이 너무 예쁘고 참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 기도도 하고 목상도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성당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가게에서 마누라가 좋아 할 만한 목걸이를 하나 샀다. 이것도 의료선교 여행 중 처음으로 내가 한 '짓'이였다.

송관호(64) 동문 별세



지난 8월 12일 송관호(64)동문이 일년여의 투병생활 끝에 별세했다. 고 송관호 동문은 미주서울의대동창회 창립부터 임종시 까지 많은 헌신을 했다. 초기 동창회 총무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 부터 동창회 대변지 '시계탑' 편집인, 뉴욕지부회장, 총동창회 회장, 출판위원장, 회칙위원회 등등 송동문의 손이 미치지 않은 동창회의 살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듯 싶다. 또한 미주한인의학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중국 연변동포들을 위한 무료진료팀을 이끌었으며 북한에 의료품을 전달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 이었다. 위의 사진은 미주한인의학협회 회장 당시 중국과 북한 방문 시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에서 찍은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랑하는 후배 송관호 선생을 잃고

나는 송관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과거지사가 되었으니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송선생은 우리 동창회가 처음 생긴 시절부터 짝 나와 같이 일해 왔습니다. 시계탑을 위해서도 늘 같이 일했습니다. 그는 시계탑 편집을 위해 라크랜드 카운티에서 먼 길을 와야 했습니다. 회칙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쾌활한 모습으로 이것저것 같이 의논하던 송선생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송선생은 우리 동창회를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송선생은 동창회뿐만 아니라 의사회(Korean-American Medical Association)를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훌륭한 업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가지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의사회 모임에서 회장단에게 제안하기를 학술대회를 연말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우리들이 할 일들이 많으며 특히 식구들과 어른들을 돌보아

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제안을 할 때마다 회장단이 찬성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학술대회를 연말에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송선생이 회장이되더니 학술대회를 2월에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내가 송선생에게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송선생이 의사회 회장을 한 해에는 많은 의사들이 중국 연변에 가서 우리 동포들을 돕는 일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위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까운 인재를 잃었습니다. 송선생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있었던 배경에는 그를 내조해 온 수필가 정재옥 여사가 있습니다. 내가 정여사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생의 세 아들 Mark, Brian 그리고 Gene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외과의사인 큰 아들 Mark는 의과대학에 다닐때 나의 학생이었기에 내가 잘 압니다. 송선생을 잃은 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노 용 면(55)

구름타고 가버린 송관호 동창

지난 8월 12일, 송관호 동기동창(64)이 암과 투병중에 우리 곁을 훌쩍 떠나셨다. 일생의 반려자 정재옥 여사와 마크, 브라연, 진, 세 아들 부부, 올망졸망한 손자 손녀 다섯을 남겨두고 눈을 감은, 예수 아홉 고인의 영결미사는 뉴욕 근교, 웨스트 나약의 성 안소니 성당에서 있었다. 은은히 울려 퍼지는 성가의 선율따라 신부님이 집전한 영결미사는 사랑하는 영부인 정 여사의 고별사가 수 많은 애도객의 눈시울을 적셨다. 성경의 <지혜서>는, "이제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 성당 장지에서 모두 한송이 두송이 새빨간 장미꽃을 손에 들고 고인과 작별하는 하관식을 마치자 푸른 하늘

에는 한여름 뭉게구름이 조용히 피어 오르고 있었다. 고인이 생시에 여름철 뭉게구름에 매혹되어 아호를 하운(夏雲)이라 지었는데 천사가 구름을 타고 마중을 나오는 모습이였다. "당신, 약속 안 지켰어..." 애써 눈물을 감추던 정 여사는 말끝을 흐렸다. 은혼식때 두 손 잡고 맹세한 금빛 축제 금혼식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으리라 믿었던 남편을 잃어버린 부인의 슬픔을 위로해야 할 말을 찾을 길 없으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여름하늘 뭉게구름같이 부드럽고 친절한 의사에 인자한 가장이며, 멋을 소중히 여기던 신사로 낙천가의 인생을 유유히 살고 간 고 송관호 동기동창과 유가족에게 신의 가호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빌면서... 두고간 벗 오 태 희(64)

최후의 만찬 -송관호 형을 보내면서-

이것이 웬일이요!! 이렇게 빨리 타계를 하다니!! 그래도, 그래도 자네가 굳건히 버티어 단 몇 년이라도 편하게 살수있기를 그렇게 빌어왔건만, 며칠전 자네와 식사할때 그렇게 열심히 육회를 씹어 삼키는것을 보고 마음 흐뭇했었던 그순간이 자네와의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나는 진정 상상도 못했소이다. 송관호 박사는 위암과 투병하다가 2008년 8월 12일 오전에 향년 69세로 서천하셨다. 나의 죽마지우였고 수 많은 사람들의 친구였고, 의학계의 지도자였으며 미국 및 한국에 있는 한인 의사들의 귀감이었던 그는 멋쟁이 남편이었으며 뛰어난 세 아들의 다정다감하면서도 가훈이 뚜렷한 아버지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넉넉치 않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돕고자 송관호 형은 공군사관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나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지만 결국 우리들의 운명은 의술 인술의 경지가 꿈이었기에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예과)에 함께 진학하기에 되었으니 여기서부터 송시열 대학자의 13대손인 송관호와 농부의 아들인 나는 지금껏 같은 길을 밟으면서 동고동락, 동거동락을 해온 것이다.

고학을 하면서 끝내 1964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의사초년생이 된후 군복무를 마치면서 미국땅에도 함께 와서 대뉴욕 근교에서 전문의 훈련을 마쳤고 송관호 형은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되었으며, 나는 암전문의가 되었던 것이다.

선천적인 재질, 탁월한 대인관계 그리고 부인 정재옥 여사(수필가)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내조는 그의 사회활동에 정상을 달리게 하면서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동문의 대변지인 '시계탑'의 편집인을 역임하면서, 이 동창회의 많은 회칙을 새로 만들고 또한 수정하면서 동창회조직을 탁월하게 수행했고 바로 미주한인의학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우리들은 연변에 있는 조선족을 위한 무료진료, 그리고 합들었지만 이북까지 가서 약품을 전달할 수도 있었다. 이외에도 한인사회 및 미국 정신의학계에 공헌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많아서 생각해 본다.

미국에 사는 우리 동기 의사분들이 거의 80여명이 있지만 우리들 만남의 선구자였던 송관호 형이 타계하는데 있어서도 선구자가 되는 것은 진정 우리 모두 바라지 않았던것이 현실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면서 눈물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눈물이 탕진되고 성대가 탈진한 부인 정재옥 여사, 세 아드님 Mark Song, MD, Brian Song, Eugene Song, 동생 건호, 진호, 명호, 다섯 손자 손녀들, 그리고 가족 이상으로 아낌을 받았던 김 박사, 홍 박사께도 아울러 심심한 조의를 보냅니다.

끝으로 운명 몇 시간 전에 보여준 자네의 미소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안심했지! 자네는 이미 천국(극락)에서 영접을 받고 있었다고...

- 허 선 행(64)

송관호 형을 추모하며

저는 고 송관호 선생님을 늘 존경하고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등학교때 부터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가정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형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면 칠순이신데 향년 70세를 못 채우시고 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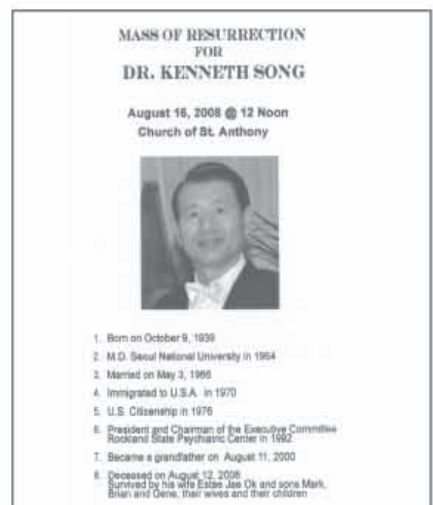
형, 이런 큰 슬픔이 이렇게 빨리 찾아 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하면 형은 조금 일찍 가신 것 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해가며 형의 뒤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형이 우리 마음속에 차지했던 자리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생전에 보여주신 형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형은 탁월한 지도자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삶의 지혜와 방식을 보여 주셨습니다.

형은 많은 동창회, 한인의사회, 교포사회 그리고 미국사회에 지도자로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서울의대 동창회를 위하여 많은 개인적인 회생을 하였고 이를 반석위에 올려 놓으신 그야말로 '서울대동창회의 대부' 이셨습니다. 형은 이와같이 유능한 지도자 이셨습니다.

그리고 형은 남다른 가장님 이셨습니다. 자손들에게 한국적인 전통과 가치를 가르치시고 특히 어른들과 조상님들을 숭배하고 모실줄 아는 가풍을



세우셨습니다. 형은 부인 Ester Song을 지극하게 사랑하셨고 항상 여왕님으로 모셨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부부간에 깊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세 아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형은 이와 같이 뚜렷한 가훈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형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성공적이고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형은 항상 화려하게 빛나는 꿈을 가지고 한순간도 헛되지 않게 사셨습니다. 그동안 형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즐거웠던 많은 시간들을 형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0여년 동안 형과 가까이 살아올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 이제 인간적인 모든 고뇌를 버리고 천상에 가서서 명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 용 재(66) 올림.

오랜 친구 박태진 군을 보내면서

오 태 요(62)

지난 5월 10일 평양의학회를 마치고 서울을 거쳐 집에 오니, 너의 큰딸 인아의 뜻하지 않은 전화 전갈이 있어 선뜻 마음이 몽글해지면서 무거운 뜻을 알게되었다.

너와의 관계는 길고 길어 1956년으로 돌아간다. 의예과에 들어온 외톨이 신입생인 너와 나, 또 다른 외톨이들이 함께 모이는것은 그당시 당연하였다. 일류 고등학교를 나온 많은 동기생들은 저희끼리 모이게 마련이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부심과 또한 열등감(?)을 가지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나는 나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너의 경우를 알고서는 내 존경하는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다. 생존경쟁을 위해 일하면서 혼자 고학을 해온 너의 노력을 잊을수가 없다. 대학입학검정고시를 위해 서울에 왔을때는 시간이 늦어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고, 그때에 이릉도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흥국 고등학교에 편입해서 졸업장만 가지고 의과대학에 들어온 너의 지능과 노력과 정력을 나는 너무나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서로들의 고충과 노력을 우리 외톨이들이 함께 모여 웃으며 나누던 시절이 너무나도 눈에 선하다.

나는 나대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너의 이야기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했다. 너의 아버님, 아랫 남동생과 여동생이 많이 도와주리라 생각하지만, 너의 명석함과 끈질긴 노력과 그치지않은 유모아가 너를 이끌어 갔고, 의사로 만들었다고 나는 믿는다. 나보다 서너살 앞서있는 너는 보다는 많은 경험과 넓은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들을 도와 준것을 너무나 잘 알지. 그 비참했던 6.25 동란과 그 후에 있었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불안속에서 그대로 밀고 나온 너의 삶에 우리는 감탄했다. 고생이었지만 그대로 서로 나누는 정 있어 우리 외톨이들은 잘 지냈다.

졸업 가까워 대부분이 막연한 꿈과 희망에 잠겨있을지음, 너는 현실을 직감하고 미국으로 갈 계획을 하나씩 세웠지. 다들 하는것이니 모두들 ECFMG시험을 마쳤고, 내가 망서리고 있을 때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보고 앞을 타개하도록 도와 준것도 너란다. 미국에와서 네가 재활의학의 수련과정을 택했을때, 나는 다시 한번 너의 현실 감각과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아는 명석함에 다시금 놀랐지. 학창시절에 꿈과 낭만속에 잠겨있던 우리들을 일깨워주고 각자의 자신을 알게 도와준것도 너 였다.

처음엔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연락이 되어 무척이나 도

움이 되었다. 네가 오마하에 와서 몇년 동안 개업을 했을때가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 너의 딸과 두 아들 너의 아들과 딸이 재미있게 함께 지내던것이 눈에 선하다. 너의 자식들이 모두 성장해서 의사가 되었고 또 그들의 배우자들도 의사가 되었으니 큰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6.25 당시 북한에 남아 계셨던 큰 누님과 그의 부군도 의사였으니, 정말로 의사 집안이라고 할 수 있지. 학창시절에도 그랬지만, 미국에 와서 살면서 서로 주고 받은 생활 철학이 너무나 같아, 자식들의 양육과 교육에 무척이나 열심이었던것이 눈에 선하다. 어디에 살던지 인간이란 다 같아서 충실하게살면 되는것이라고 늘 말하던것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이곳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북한에서 생 이별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으로 늘 마음속으로 근심하던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1993년 마침내 의학회가 있어 평양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92세의 노모를 뵈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이라고 해야지. 43년만의 해후라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다. 이 해후야말로 정말 복이지만 우리가 다 가지는 비극이라고 해야겠지. 그 이후로도 다른 기회를 찾아 몇번 왕래했고, 인편과 편지로 자주 소통을 했지만 그곳의 딱한 사정과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너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흔하게 느껴진다.

은퇴를 해서 여유있고 한가한 시간을 가질수 있을때 전립선 암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나더니, 이번엔 아주

고약한 췌장염(Necrotising Pancreatitis)에 달려 들어 운명했으니 참으로 알수 없는 인간의 삶이라고 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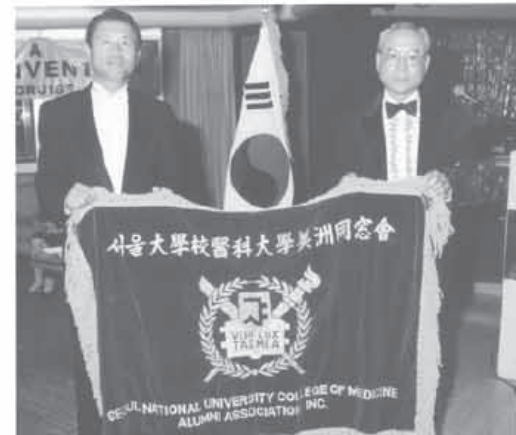
너는 언제나 쾌활하고 긍정적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성적이었던것 같다. 나에게도 동료이자 친구였지만 보다 깊은 배려와 격려로 언제나 나를 이끌어주던 "형"과 같은 존재였다. 나도 곧 은퇴하면 좀더 가까히 지낼수 있고 허심 탄회하게 마음속을 나눌수 있기를 바랬는데 모두 헛되고 말았다. 우리들의 삶은 다 끝이 있고, 그 누구도 알수없는게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인지도 모른다. 너나 마찬가지로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내세가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수 없었고, 또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다. 너와 항상 이야기 했듯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할수 있는 선한 일들을 다 하면 그만이지 않나? 해가 갈수록 늙어가고 우리들의 끝이 조금씩 다가오지만 어떻게 할수 없지 않느냐? 종말이 어떻게 오던 꾸준히 살때까지 노력해야지. 그러나 친구이자 형과 같았던 너를 잃고 나니 마음의 허전함과 슬픔을 금할수 없구나.

보스톤에서의 추도식에 참석한것을 무척이나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 오랫동안 말라 있었던 내 눈에 눈물이 흘러 찬송가를 부를수가 없었지. 용서하게나, 불교에서 흔히 쓰는 "공수래 공수거" 구절은 육체에 대한 구절이고 영에는 해당하는것 같지 않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이자 선생 격인 너를 잃었지만, 항상 너를 생각하며, 너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빌며 열심히 살려한다.



시계탑 편집회의에 항상 참석했던 고 송관호 동문. 앞줄 오른쪽부터 김병석(편집장), 노용면, 송관호, 허선행, 뒷줄 오른쪽부터 황창근(인쇄소 사장), 서랑 노재홍 동문



송관호 회장이 배영섭 차기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이양하고 있다(1998년 7월). 소천하기 한달전 모항크 휴양지에서 막내아들과 함께.



미세스 송
너무나도 기막히고 큰 슬픔 앞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재옥씨의 아픔과 괴로움과 쓰라림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늘 같이 계셔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날씨가 굳어 길에서 한참 해마다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송 선생께 하직인사도 못드렸습니다. 동행했던 이계향 여사도 못내 아쉬워했지요.

재옥씨, 부디 몸 조심하시고 힘 내셔야해요. 남은 일들을 위해서, 또 송 선생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 김마태, 전재금

미세스 송 보세요
그제 관호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다는 소식에 너무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의 마음도 이처럼 아픈데 미세스 송이야 말할것도 없겠지요.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거의 일년을 병 간호하면서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계셨겠지만 막상 닥쳤을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것 같았겠지요. 두 분을 모시고 변변치 않은 저녁 대접을 한것이 엇그제 같은데. 잘될꺼야 하고 오히려 나를 달래주던 관호와 헤어진 것이 마지막이 될줄이야.

저의 병원사정으로 관호를 마지막 보내는 시간에 참석할 수 없어서 정말로 너무,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호는 미국에 있는 한국의사로서는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렸고 아들들도 잘 키워냈으니 여한이 없는 생을 살고 갔다는 것으로 위로가 됩니다. 비록 남아있는 우리들 보다 조금 덜 살고 간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몇년전 일본 여행중에 절에서 불공을 드리면 극락에 갈지도 모르고, 성당에서 기도하면 천당에 갈지 모르니 양다리 걸침 한다고 해서 지조없는 친구라고 놀렸는데, 내일 영결미사를 드린다니 틀림없이 천국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내일은 공교롭게도 성모승천일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으실때는 이미 장례식도 끝났겠지만 그래도 저의 변변치 않은 몇마디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 보냅니다.
- 이용만

Dear Mrs. Song
그동안 많이 힘드셨고 한동안 더 많이 힘드시겠지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세요. 언제라도 도움이 되어드릴수 있기 희망합니다.

삶이 참 허망하게 느껴지네요. 아무쪼록 힘내시고 늘 화사하던 모습, 되찾으신 모습 빕기를...

건강하세요. 오늘은 하늘도 울고 온 땅덩이여 Dr. Song이 touch하신 세계가 함께 읊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저립니다. 그나마 건강한것 같은 저희가 미안스러워 빕지 못했습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 전합니다.
- 노여수 내외 올림

미세스 송
관호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속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남겨놓고 떠났것 같습니다.

항상 온화한 웃음으로 주위사람들을 감싸주고 그러면서도 투철한 통찰력과 봉사정신 그리고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남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관호의 떠남이 더욱 가슴에 느껴집니다.
미세스 송,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김태환 주재숙 드림

정재욱 회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송관호 박사님이 떠나셨다니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벌써 빛의 저 너머 문턱에 와 있음을 절감하게 하군요. 이제껏 송박사님은 나보다 연세가 적은줄 알았는데? 아마 정 회장이 내 아내보다 젊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진정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송 박사님은 바늘에 실 가듯이, 항상 정회장과 함께 문헌에 계셨는데, 그러니 보니 여행을 보내듯이 떠나기 시작하는군요. 별리의 아쉬움을 무어라고 표현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언제가는 흐르는 세월따라 우리도 가야할 그곳에서우리 송박사님을 만나볼 수 있겠지요. 그때까지 마지막 불씨을 태우듯 문학애의 열정을 함께 바칩시다. 건안하시고 올해의 '뉴욕문학' 출판기념회에서 고통을 이기고 일어난 본래의 해맑은 모습 빕기를 바랍니다.
- 변수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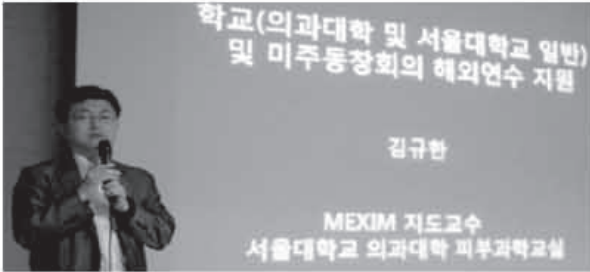
Green Project Corner

MEXIM 동아리가 탄생한지 1년 5개월 남짓 되었는데 김규한 지도교수님, 이석 전회장, 윤찬 현회장 및 모든 회원들의 열성으로 몇십년 전통의 다른 동아리 못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뿌듯합니다.

박태진(62) 선배님 추모기념회를 계기로 오태요(62) 선배님을 중심으로 "Green Project 기금"을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교 후배들의 열성과 미주 회원들의 성원이 이렇게 합쳐지면 저희 Green Project의 사업이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음을 자신합니다. 지난 여름 elective 경험 후기를 한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Green Project Chair 서인석(73, 대뉴욕지부)

제2회 '2008 MEXIM: 경험 공유의 시간'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지난 9월 23일 2008 해외 Elective 보고 및 설명회 <2008 MEXIM: 경험 공유의 시간 No. 2>를 MEXIM 회원들 및 많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3시간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The Temple Story

- Based on the GI Clerkship at Temple University Hospital -

유 나 경(본과 4년)

I. Clerkship Destination

나는 2008년 1월 21일부터 2월 15일 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대학병원에서 4주간 Gastroenterology (GI) 선택을 했다. 보다 일찍 미국에서 임상 경험을 갖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었기에 3학년 연말고사를 마치자마자 출국하게 되었다.

II. The Decision

실습 코스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internal medicine에 관심이 많고, 한국에서도 내과실습을 제일 길게 하여 한국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공분야이며, 미국에서 경험을 쌓은 후 비교하기도 쉽다고 생각되는 분야였기에 택하게 되었다.

Internal medicine의 경험을 쌓고자 결정한 이후, Temple University Hospital (TUH)에서 제공하는 여러 내과 분과의 curriculum을 꼼꼼히 살펴보고, 커리큘럼을 보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얼마나 학생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열정을 갖고 설명해 놓았는지 하는 것이다. 쉽고 편한 길을 택하기 보다는 힘들어도 도전적이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에 언제나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커리큘럼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바로 GI consult service였다. Fellow 선생님과 1:1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Round와 컨퍼런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written and oral presentation을 요구한다는 것도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실습의 형태는 미국 의료가 행해지는 큰 그림을 보고 싶었기에 ward service보다는 consult service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Ward service를 하면 수기를 익힐 기회는 더 많겠지만, 의료에 있어서 수기의 차이 보다는 mind의 차이, 시스템의 차이를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4주간의 Gastroenterology Elective를 시작하게 되었다.

III. Personal Background

사실 의대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나는 미국의 병원 혹은 의대를 경험하고 싶었고, 본과 1학년이 되어서부터 외국의 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고 임상적인 실습능력

을 갖추어 미국에 갈 수 있는 시기를 오랜기간 기다려 왔다. 왜 그토록 미국에 가고 싶고, 가야 한다고 느꼈는지 말하자면 개인적인 배경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약 7년을 살았고, 대학에 온 이후 교환 학생으로 지난 1년까지 포함하면 총 8년을 미국에서 보냈다. 부모님의 대학원 유학으로, 태어나서 6개월 때 미국을 갔고, 2년을 보낸 이후, 한국에서 다시 1년(물론 이는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후 다시 미국으로 가서 4년을 보냈고 이때 Montessori와 킨더가든,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1988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잡은 6학년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다시 스탠포드 대학 소속 연구소에 가셔서 1년간 미국에 다시 가게 되었다. 그 덕분에 버지니아주의 알링턴 캘리포니아 시애틀 등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살아 보았고, 3살 때 드류 초등학교 몬테소리 과정부터 Oakridge 초등학교의 킨더가든과 1학년, 그리고 Jane Lathrop Stanford 미들스쿨의 6학년을 다니며 다양한 단계의 미국 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나의 가치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로 "사람의 potential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과 '좋은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에 큰 가치를 두게 된 것이다. 1) 결과적으로 어린 시절이었지만 최선의 교육 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학교 생활을 하였던 경험은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고, 현재의 나를 있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다. 동시에 '좋은 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시스템의 절대적 필요성이 내 철학의 중심에 자리잡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성급한 일반화 일 수도 있지만, '미국 교육'에 대한 동경을 계속 가지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힘들었지만, 한국의 중 고등학교에 잘 적응하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입학한 이후 4학년 때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UW)으로 교환학생을 1년간 갔다. 어릴 적 미국 거주와 달리 이번에는 자의에 의한 선택이었고 그 동안 성장한 나를 다시 한번 국제적인 무대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UW에서 보낸 1년간은 어릴 적의 추억보다 더 큰 강도로 내게 '교육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지도교수님이신 김규한 교수님께서"해외 Elective 지원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양현식(본4)의 "해외 Elective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필두로, 안창호(본4), 박세훈(본4), 홍재리(본4), 김수진(본4), 유나경(본4) 등의 미국, 일본, 본교에서의 elective 경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찬(본4) 현 MEXIM 대표가 MEXIM 동아리의 목적 및 활동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아래의 다양한 토픽들에 대한 발표 및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Research Electives: Basic Research 김용우(본4) / Clinical Research 이가연(본4) / WHO (국제보건기구) 장효범(본4) / KCDC (한국질병관리본부) 최근희(본4) / Public health at India (인도보건의료) 문선준(본4) / Pharmaceutical company (제약회사) 오백록(본4) / Consulting company (자문회사) 오백록(본4) / Law firm (법률회사) 최재우(본4)

이번 여름동안 MEXIM 홈페이지에 4학년들이 주동이 되어 해외 Elective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Elective를 갈 경우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이곳에 등록할 경우 해당지역에 계신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 직접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MEXIM 동아리 방이 생겨, 이제부터는 동아리방에서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찬(본4) 보고



영향을 절감하게 해주었다. 여기서 교육 환경이라 함은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여건을 만들고, 의욕이 있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주며, 성취감을 마음껏 느끼게 하여 하나의 성과가 또 다른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하겠다. 짧은 1년이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교육환경(교육 자원 등)을 유감없이 활용했고 그 과정 중에 Howard Hughes Research Scholarship을 받고 실험실에서 연구도 할 수 있었고, 함께 선발된 학생들 중 연구의 막바지에 poster 발표를 하여 1등 상도 받을 수 있었다. 이때 영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 쏟은 노력이 상당한데, 영어 작문 수업에서 교수님이 "I never knew what a difference 10 weeks would make! As a grader, I tend to reserve the best grade for only one student in my class and this quarter that person is you. Congratulations."이라고 돌려받은 essay portfolio 앞에 적어두신 문장은 아직도 잊지 못하며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처럼 미국에서 쌓은 좋은 추억들은 노력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 교육의 장점에 대해 확신을 더해 주었다. (UW에서 생명과학 수업을 듣고 여러 의학박사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메디칼 스쿨로의 진학을 생각했고, 교환학생을 마치고 서울대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사 입학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도 충분히 경험해 본 자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도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름대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한 것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로 인해 학생의 입장에서 각 교육의 단계마다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이번 임상 실습을 오랜 기간 기다려온 이유이다.

IV. The Drive...

미국에 임상실습을 하러 가기에 앞서 왜 가고자 하는지, 무엇을 얻어오고 싶은지를 고심하여 몇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 큰 목표는 한국에서 병원 실습을 통해 겪은 병원 생활, 병원 체계를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고 미국 의료의 선진성이 어디에서 기초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두 번째는 미국에 residency를 하러 가고픈 마음이 컸기 때문에 미국에서 레지던시 과정의 실재를 학생으로나마 경험하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차이도 보고,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었다. 이러한 목표와 저의(?)에 더불어 세부항목으로는 "(1) 의학어를 제대로 익히기(한국에서 배우는 의학적 용어의 발음과 미국 의학드라마 또는 NEJM iTunes로 들은 용어의 발음은 상당히 재미난 차이가 있었다.), (2) 미국 의대생들과 어울려 보기, (3)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생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열심히 해서 서울대의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로 하였다.

V. What I've done

1. 병원실습 (TUH- GI elective)

1-1. Schedule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스케줄은 아래와 같았다.

주로 아침 7시 30분에 하루가 시작되었다. 4시에서 5시경에 라운딩이 끝나면 하루가 마감되었다. 물론, 환경이 낯선 첫째 주에는 일반적인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라운딩이 끝나도 더 오래 남아있다가 퇴근하였다. 처음에는 일찍 끝나도 날이 환할 때 병원을 나서서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이 아직 있는데 학생이 먼저 가는 것도 어색했다. 그러나, 1~2주가 지나자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열심히 하는 대신 선생님들도 특히, 학생에게는 일정 시간이 되면 일과가 끝났음을 주지시켜주었다. 초기에는 필라델피아의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통근이 위험한 길이라고 절대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일찍 나서도록 독려했었다.

기본적으로는 GI consult service, GI procedure, Outpatient로 크게 스케줄이 돌아갔다. GI consult service는 입원 환자, ER를 통해 들어온 환자들에게 GI 쪽 문제가 의심된다는 타과의 consult를 받아 환자를 직접 보는 것을 말한다. 처음 몇 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웰로우 선생님과 같이 가서 환자에게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을 하고 consult sheet를 작성하는 것을 같이 보았다. 이후는 내가 환자를 보는 것을 웰로우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나중에 나와서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feed-back을 주셨다. 이틀째부터는 헬로우 선생님이 직접 환자를 보고 오라고 하였다. 환자를 보고 와서 consult sheet를 작성하고 헬로우 선생님께 보고하고, 다시 회진 때 교수님께 보고하였다. 처음에는 누구의 supervision 없이 환자를 보고 오는 것과 나의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 헬로우 선생님, 교수님으로 이어지는 여러 번의 확인 시스템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나의 능력을 파악하고 feedback을 받아 발전할 수 있음을 느꼈다.

GI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것은 많은 procedure 들이다. Upper Endoscopy, Colonoscopy, ERCP 등 여러 가지 procedure들이 하루종일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procedure를 마음껏 참관하고 procedure를 직접 해 볼 수는 없지만, 환자를 안심시키고 과정을 설명해주는 등 팀원으로 활동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Procedure room에서 ERCP를 해서 들어가 보았는데, 화면으로 Ampulla of Vater를 봤을 때의 환회는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 없다!

외래 진료는 미국을 가기 전에 많이 궁금했던 분야였다. "우리나라는 오전에만 환자를 100명 가량 보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더라...", "미국에서는 진료시 설명을 정말 친절하게 해준다..." 등 진실을 알고픈 사안들이 많았다. 실제로 신체검진 학습 비디오 등을 통해 본 미국의료진의 모습은 자상한 의사, 참된 의료를 구현하는 의사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외래진료가 있는 날이면 빼놓지 않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한국의 의료와 세세한 곳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재미도 많았다. 저소득층 그리고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이 많이 방문하는 TUH의 특성에 국한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생각만큼 한국의 외래진료와 '진료'의 질 차원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진료 및 환자대기'의 형식, 시스템적인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다. 외래는 헬로우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고 그날 어텐딩 교수님과 상의하고 교수가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decision and plan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헬로우 선생님들이 환자를 약 10~15분 정도 보고 교수님의 확인까지 거치면 환자당 평균 20분 정도 보았다. 한국의 3분 진료에 비하면 상당히 오랜시간이었고, 시간이 긴 만큼 환자에게 친절히 대하고 차분히 설명하고 궁금한 점은 해결해주는 의사가 꼭 행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점은 매우 부러웠다. 그러나 decision making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한국보다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느낌도 들었다. 그리고 100명 넘는 환자를 보는 한국 의사들과 달리 30명을 오전에 보게 되면 환자가 너무 많다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보며 서울대학병원의 선생님들의 인내심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면 이상한가?

1-2. Anecdote

My 1st patient & DRE

첫 환자를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떨린다. 뭔가 만나기 전에 완벽히 알고 가야 할 것 같은 어리석음에 발길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영어는 native speaker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는 내게 의학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하자니 발음도 불확실하고 버벅거리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었다. 그래도 환자에게 불안감 마저 전해 줄 수는 없기에, 당당한 자세의 웃는 얼굴로 들어가서 내 소개를 하고 차분히 문

진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의 나의 첫 환자는 68세의 흑인 여성이었다. Previous event of blood in the stool을 주소로 consult된 환자였다. 상담을 받았을 때는 언급된 적이 없던 Colorectal cancer op. history가 예전 차트에 적혀있었으나, 이상한 일이지만 환자는 이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여러 가지를 묻고 이제 physical examination을 할 차례였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그분은 상당히 뚱뚱하였다. 그래도 palpation으로 어느 정도 장기가 구분되던 나의 손끝에 불확신이 감돌았다. 만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순간 당황되었다. P/E에 뭐라고 쓰기까지 해야 하는데, 무조건 normal이라고 적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우여곡절 끝에 abdomen의 신체검진을 마치고, 모든 GI patient의 필수 코스인 DRE를 해야 할 차례였다. (DRE가 매 routine 하게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occult blood test를 하는 것도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완벽히 돌아놓지 못한 자세에서 사실 anus를 찾는데도 진땀 흘렸다면 믿어질까? Colorectal cancer op. history도 있는데, Mile's op 였다면...anus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이분은 옆에 colostomy or jejunostomy도 갖고 계신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길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다. 시간이 흘러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했다. 아니,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빨리 consult sheet를 작성해서 헬로우 선생님께로 향했다.

Medical Jargon?? Maybe NOT!

한국에서 의학을 배우다 보면, 그리고 그 중 용어의 다수가 영어이다 보면 환자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당연히 풀어 설명해야 한다. 많이 범하는 우가 환자들 앞에서 medical jargon을 남발하는 것이다. 영어이기 때문에 미국인은 이해가 더 쉬울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의학용어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의학용어가 일반용어인 경우도 있었고, 환자들이 더 잘 이해하고 쓰고 있었다.

'꿀꺽!' Unconsciously Korean

GI procedure room에 들어가면 진정수면제를 주어 환자들이 procedure의 힘들음을 기억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도 환자에게 말을 걸며, 환자는 어느 정도 지시에 따를 수 있다. Upper endoscopy를 준비하는데, 환자분이 들어왔다. 미국에서 오랜기간 살고 계신 한국분이었다! 실습을 온 이후 환자로서 한국 분은 처음 뵈었다. 몇 마디를 나누고 안심시켜드리고 procedure에 들어갔다. 교수님과 헬로우 선생님이 영어로 설명하면서 endoscope이 식도를 통해 잘 내려가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endoscope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아무리 "You can do it~ Swallow please~ Once again..." 등을 연발하여도 반수면상태에 가까운 환자는 힘들어 할 뿐 진척이 없었다. 이때 너무 적합한 한국 용어가 떠올랐다! "자~ 꿀꺽!!" Procedure는 성공리에 끝났다.

Assertive medical student

외과대학생인 만큼, 미국 의대생들의 병원에서의 자세가 궁금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인턴수준으로 일을 하여 수기 등 못하는 것이 없다고 들어오던 터였다. 우리 elective에도 템플 본교 4학년 학생들이 있어 함께 지낼 수 있었다. 레지던트를 지원하고 인터뷰를 하러 다니거나 대부분 마친 상태였기에, 이러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이들의 생활상도 엿볼 수 있었

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사와 동급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표출하는 적극성이었다. 교수님 회진 중에도 질문을 서슴지 않고, 자기 의견을 과감히 개진하였다. 공손하게 행동하고 나서지 않음을 미덕으로 아는 한국의 교육환경에 익숙해진 나로써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였지만,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빈수레가 요란해서는 안되겠지만, 내가 아는 것을 잘 포장해서 멋있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2. Free-time

첫 주를 학교에서 소개시켜준 친구의 집에 렌트로 지내다가 필라델피아 북쪽의 주택가를 벗어나 활발한 대학가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UPenn 캠퍼스내의 유니버시티 구역로 옮기기로 결심하였다. 다행히 좋은 방을 구해 지내면서, 유펜의 서점에 수시로 들러 아무 곳이나 앉아 책 한 권에 파묻힐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였다. 주말을 이용해서는 필라델피아 구경도 하고, 다른 친구들을 소개받아 만나기도 하고, 어릴 적 살던 워싱턴 디씨 알링턴 지역을 둘러보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VI. What I've learned

우선, 미국과 한국의 의료의 큰 그림을 비교하고픈 마음으로 미국에 왔다. 완전한 이해를 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4주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고, TUH가 대표성을 띤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제한된 경험이다. 그럼에도 짧은 4주를 마치고 느꼈던 바를 적어보고자 한다.

의료 지식의 측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큰 차이가 없다.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여 지식의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서울대는 학구적인 사람들의 집단 아닌가!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성실히 공부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지식적인 resource는 어디에나 있다. 다만, 부러운 것이 있다면, 기초 리서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한 기반이 조성되는 미국 의학계의 분위기이다. 레지던트의 스케줄에 research month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랍고 부러웠다. 의료가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교수님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수정된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의사의 모습이 아니라, 한 팀이 되어 활발하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여 결론에 도달하며 이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묻고 배우는 모습은 너무 편안하고 참된 교육으로 비춰졌다. 의료 자체의 우월성 혹은 차이는 한국과 비교하기 이른 감이 있었다면, 그들의 수련의에 대한 교육시스템 만은 본받을 점이 많다.

둘째, Residency에 대한 고민을 끊임 없이 하고 있는 내게 이번 clerkship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인 영어와 의학 용어의 차이 또는 병원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느끼기는 했지만, 이는 짧은 시간에 익히면 될 일이다. 이러한 사소한 사안 보다는 진정한 의학 실력을 갖추는 것이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셋째, 서울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은 분명 우수한 인재들로 가득한 곳이다. 그러나, '우리' 밖의 세상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개발에 힘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의학이라는 학문에 국경이 없듯이, 의사라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국내에서의 위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세계적인 수

준의 의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motivation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VII. Where I want to be in the future

좋은 트레이닝을 받고 의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차분히 쌓아가며 훗날 내가 습득한 바를 후배 의학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치에 서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의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함에 있어 연구도 열심히 하고 싶다.

얼마 전 학교 수업의 보고서로 의대 졸업부터 임종까지 인생의 계획을 써내야 하는 것이 있었다. 거기서 적은 일부를 여기에 옮겨 본다.

1) 사회적 책무 + 개인적책무: 나는 서울대인으로 큰 자부심과 애교심을 갖고 있다. 사회와 학교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오래되었고, 또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의대를 올 때는 연구하는 시야를 키우고 싶음이 컸기 때문이다. 초심이 변치않고 최고의 임상과 최선의 연구를 할수있는 의사가 되어 훗날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현실적으로 안전한 길을 택하기 보다는 리스크가 있어도 도전하는 길을 택하자: 사회인으로 생활하다 보면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며 그래야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서, 정해진 수순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거 나의 모습과 같이 도전을 즐기고 항상 energetic 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3) Enjoy Life! 일에 파묻혀 나를 잊는 인생을 살지는 말자: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굉장히 goal-driven하고 공부하는것 자체를 하나의 큰 일처럼 생각하고 산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과연 인생을 제대로 즐겼는지 반문하게 되고 싶지않다. 시간은 유한하고 욕구는 유한하다면 유한한 시간을 써가며 무한한 욕구를 쫓기보다는 시간을 소중히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의학에 대한 배우는 자세를 끊임없이 갖추고 임상에 입하는 의과학자가 되고자 한다.

VIII. Upon Returning

대부분의 동기들이 아직 미국으로 가지 않은 올해 초에 clerkship을 다녀왔다. 그러기에, 다녀온 경험을 공유할 기회도 많았고, 내 이후에 많은 동기들이 템플 대학병원에 지원하고 다녀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실습과를 지원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challenging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얘기하며 도움도 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경험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현재 MEXIM의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아리 세미나 및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 elective 경험 공유의 자리에서 미국을 다녀온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동기들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정보제공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국의 elective를 다녀오면서, 더 큰 동기부여가 되어 의학공부 및 의학영어를 확고히 하는데 더 힘쓰게 되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기에 철저히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끝으로, 서투르고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은퇴 독백

이수인(63, 남가주)

도시와의 사랑은 자기만이 아는 비밀스런 사랑이라 했습니다. 칼스바드에 이사온지 삼년. 새 여인에 마음이 끌리는양 반해 있습니다. 양노원같이 은퇴인들만 들쭉거리는 죽으러 가는 도시가 아닌 평범한 도시인것이 다행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시카고를 떠났다는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곧 여행에서 돌아올것같은 마음이었는데, 이방이지만 고향처럼 느끼며 살아가던 도시에서 내게 많은 일이 일어났고 이 귀한 기억들을 몇번이고 주워담습니다. 가끔 만나지만 늘 가까이 느끼는 친구들, 리릭 오페라, 미시간 호수, 시카고 스카이라인, 나뭇잎이 눈에 싸인 풍경, 한겨울 창가에서 만끽하던 햇살 그리고 러쉬 스트리트의 작은 스페인 음식점에서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 - 이들을 정리하기란 인정을 정리하는만큼 더 어려웠습니다.

추운지방에선 남국이, 사막에선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 더운 지방에선 해가 지는 서쪽이 극락이 됩니다. 나는 극락을 찾아오고 있었지요.

이곳 남부 캘리포니아엔 약속도 없었는데 열두명의 동기가 함께 모여 삽니다. 결혼이든 우정이든 소속감은 안정을 주지요. 그만큼 우리 마음의 평온을 갖습니다.

새하얀 벽과 붉은 기와와 야자수-지중해 지역의 경치와 다들게 있느냐면서 우리 여기서 오래 살기로 했습니다. 뒷동산이 어릴때 살던 마을의 동산과 비슷하다고 아내는 좋아하지요. 갖 심은 나무들이 자리를 잡을 무렵이면 붉게 물들인 낙엽을 발로 찬다든가, 눈덮힌 창가에 핀꽃이 더 곱게 보

인다는지, 초그만 참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더 따스하던 감상은 이젠 더 활짝 핀 행복으로 변하지요. 바다로 뻗친 길들이 바다 내음으로 가득차고 밤의 평온이 조용한 은빛 바다물결같이 내 몸을 스쳐갈때 고향이 보이지 않는 화사한 총만으로 변합니다. 내 로프트는 내 원두막, 참외서리를 하든 어린 시절이 되 살아 나는곳. 소금에 젖은 바다바람이 내 얼굴에 스치면 토리파인에서 파라글라이드를 타는 이들을 되뇌입니다.

은퇴를 즐기나요 하고 물으면 늙어서 조금은 박제된 인간이라 이릅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지경이면 은퇴와 은둔의 의미가 서로 엇갈린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평가 받고 싶은 욕망때문에 우리는 노력했지요. 그것은 기독교사상지에 어떤 목사가 쓴 것처럼 "관계의 감옥에서 모범수"가 되려는 노력을 끝없이 이어나가는 우리의 생활이 됐던 것이고 우리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것을 내 생활에서 떨쳐내기란 참 힘이 듭니다. 짜르뜨르의 full life는 이런 소유의 찬양을 의미하진 않았을 겁니다.

헌데 크고 작은 플랜이 없으면 사는데 무슨 재미가 있었오. 인생의 여정이 계속되고 실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치 소음이 있다가 파묻힌 생활이 고조되면서 좀더니 이젠 너무 심심해진 이야기여선 안되지요. 산다는 의미에 대해 자신이 없어질때라도 당황스런 하루가 안되게 노력을 하지요. 한없이 늘어나는 욕망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적게해서 얻는 쾌락은 에피큐리안 적이라 합니다.

내가 창의적이었으면 작거나 발명가가 되었을텐데, 내가 달변이었으면 정치가나 성직자나 사기꾼 되었을텐데 겨우된 의사가 테크닉의 전달자로 평생 살다가 권좌에서 물러난 기분이지요. 여하튼 내 행복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방패가 없어진 지금 종전의 집서가 무너지는 소음을 가끔 듣습니다. 아직 감각과 감성이 존재함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엉덩이나 빼고 뒷전

에 앉아있다가 갈순 없잖아요. 술 많은 머리카락으로 지탱하던 체면이 날로 알파해지면 나는 독서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책들을 주워 읽었습니다. 옛날에 읽은 책들을 되 읽어보면 새 의미를 안겨 주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지나친 많은 헛된 삶을 담담히 엿보지요. 내 나머지 부분의 삶에도 같은 헛됨이 있을겁니다.

조금은 정리된 화단과 채소밭을 쳐다보면서 까류의 '행복한 죽음'의 주인공처럼 이젠 자연과 은둔의 종착역에 왔다 합시다. 내게 배당된 초그만 에이커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잔디 한 복판엔 돌을 깔아 징검다리를 놓고 우리 둘이서 좋아했습니다. 어젠 다람쥐가 갈가먹은 토마토 나무를 바로 세우고 오이와 고추를 수확했지요. 단감 나무는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할것 같군요. 올해엔 딱 한개의 감이 열렸군요. 뫼들은 장미나무로 모두 채워졌지요. 여기는 장미의 천국이랍니다. 클라이머들이 제법 뒷벽을 많이 채웠습니다. 페달이 몇개 안되는 올림피아드는 청초하고 고고하기까지 합니다. 다빈치나 크립슨은 요염하구요. 바위같이 딱딱한 땅을 곡괭이로 파느라 내 심장의 이상박동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을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Kappu라 불리우는 쇠쭈를 기르지요. 개를 키우는것은 인간에 대한 애완욕망이 좌절된 발로라 우겨됩니다. 개를 좋아하지 않던 내가 개 시중이 정으로 변하고 이놈이 없으면 내 생활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정이 가는 동물이 되버린 이 녀석의 순종과 잠난스러움은 내 정성을 끄집어 내지요. 이 산책길의 동반자의 생동스러움과 생명에 대한 경외 땀에 나는 조심스러워 집니다. 우리의 생이 다음생으로 이어져 가는 운생의 희망이 종착역이 될 천당보다 더 마음이 끌립니다. 다음 생에서 나와 Kappu와의 위치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쓴 웃음을 웃지요.

저녁엔 새로운 오페라 마농을 들을까 합니다. 2008년 칠월에

마지막 남은 코스모스

글 신영철(59, 메릴랜드)
그림 김진호(61, 서울)

여덟 개의 순하다 순한 흰 꽃잎
아직도 군살 없는 너의 몸매
단순하고 소박하고 청초함이어

본시 한줌도 안되는 흙이었던 너
신비스럽게도 꽃으로 피어난 너
한 점 뉘우칠 일 없는 너
나의 지난 날을 뉘우치게 하는 너

부풀어 오르던 희망의 계절도
숨가쁜던 자기 도취의 계절도
다 간지 오래고

이제 헌전하고 안타까운
이 체념의 계절마저
쓸쓸히 저무러

너를 희롱할 나비조차 없는데
그리고 너의 뱃털도 다 떨어져
저렇게 들 누워 있는데

뒷마당 한 구석에
애처럽고 쓸쓸하게
홀로 남은 너

어김없이 곧 다가올 겨울도 지나
세월이 끊임 없이 흐르면
화려한 계절 또 오겠지만
그건 너의 뫼이 아니다

너의 맑은 모습
이 허전한 내 가슴속에
겨우내 간직하리라

내 차마
너를 꺾어서 버리지 못하니
지거라 가거라
미련없이 흙으로 돌아가거라
마지막 홀로 남은 코스모스야



텔레비로 좋은 중계를 볼 것이다.
다만 인류가 서로 핵전쟁 혹은 종교 전쟁으로 서로 싸우다 멸망하거나, 오염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나, 별과 충돌하는가 하는 재앙을 피한다면 그렇다는 얘기가.
천국은 지상과는 비할 수 없이 좋고 영원하다고 하니 북경 올림픽이 마지막 올림픽이 되던 앞으로 올림픽을 한두번 더 보던 간에 그런 문제로 마음을 쓴다는 것은 어리석다고 나는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선명한 큰 화면 앞에서 beach volley ball 에서 탄력 넘치게 띄어놀라 강스파이크를 넣은 윌슈선수를 감상하고 마이크 펠리스 그리고 박태환 선수를 내 자식들이 경기하듯이 응원하며 흥분하고 앉아 있다.

북경 올림픽

임낙중(59, 메릴랜드)



내 만 칠십사세 생일을 석달 남겨놓고 북경올림픽 대회가 열렸다.

내가 십년 넘게 애용하던 소니 아날로그 텔레비는 내가 제

일 자주 보는 Jurner classic movie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

수년전부터 시장에 나오는 프라즈마나 LCD 텔레비를 살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잘만 나오는 텔레비를 버린다는 것이 어쩐지 낭비이고 지구 오염을 조장하는데 나도 한몫 끼는 것 같아 고장날 때까지 써야지 하며 나 자신을 타일렀다. 그렇게 버티어 보려던 내 결심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는 내 나이를 자꾸만 의식한 것이다.

십대 성현의 한 분인 공자는 칠십삼세에 생을 마감했으니 나는 공자보다 더 오래 살았다. 육십이세에 돌아간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보다 나는 더 살았다. 그런 성현들과 비교하는 나를 방자하다고 탓할 분도 있겠지

만 실은 내가 그분들을 대단히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명을 살펴보고 고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다.

내가 만일 붓다만큼 수를 한다면 올림픽을 한번 더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도 내 눈이 그 나이까지 잘 보이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다. 아내가 들으면 방정맞은 소리라고 나를 타하겠지만 북경올림픽 중계가 내가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중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서 기왕이면 high definition과 digital로 보아야겠다는 욕심이 개회식이 가까워 올수록 나를 압박하였다.

그래서 오염이니 낭비니 하는 생각을 접고 올림픽 개회식 전날 부랴부랴 나가서 삼성제 LCD를 사들고 와서 아내와 끼워 맞추었다. 셋째 아이가 그 소식을 듣고 엄마 생일선물 이라면서 대금을 치루고 갔다. 성의가 고마워 텔레비가 더 보기에 좋았다. 화면이 먼저 텔레비 보다 두 배나 더 크고 영상이 실물을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해서 올림픽을 보기 위하여 텔레비를 바꾼 내 결정이 옳았다고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다.

둘째 이유는 내 시력이 점점 퇴화하는 까닭에 그전 텔레비 화면이 흐려서 보기가 힘들어 졌다. 눈에 스트레스가 차츰 더해가는 것을 느꼈다. 차 스피커 컴퓨터 들은 수년에 한번씩 더 좋은 성능 때문에 신형으로 바꾸듯이 결국 텔레비도 디지털로 바꾸었다.

지구 어느 한구석에서는 굶는데 신형으로 수년마다 바꾼다는 것이 죄스럽기도 하나 나도 별수없이 추세를 따

라 산다.

처음 텔레비를 보았을때 신기하고 나도 가지고 싶었다. 십이인치 흑백 텔레비를 샀을 때 성취감 우월감까지 느꼈다. 얼마 있다가 천연색 텔레비가 나오자 흑백 텔레비는 물러났다. 선친 환갑기념으로 컬러 텔레비를 사드렸는데 그때만해도 환갑선물이 될만큼 귀하고 비쌌다.

차츰 화면 사이즈가 커지더니 high definition, plasma, LCD 가 등장했고 아이들 집에 가서 육전불이 넘는 대형 스크린을 보고 걸로 감탄을 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런 돈 들여 쓰고 있던 텔레비를 바꾸지 않겠노라고 마음 먹었다.

내가 산 여러 텔레비중에서 고장이 나서 버린 적은 단 한번 뿐이었고 나머지 경우에는 기능이 멀쩡한 텔레비를 구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쓰레기로 버렸고 버릴때마다 오염이니 낭비니 하면서 죄의식을 느꼈다. 이번에도 퇴역한 소니 36인치 텔레비를 내다 버리지 못하고 차고 한구석에 모셔 놓았다. 결국 쓰레기로 버릴 것을 그렇게 모셔두는 내 자신이 딱하다. 아마 육이오 동란 출신의 버릇중에 하나 이리라.

나는 북경 올림픽 중계를 집에서 현장에 가서 관람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올림픽인지 아니면 앞으로 한두번 더 볼 수 있을 것인지 생각에 잠긴다.

내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나던지간에 사년마다 올림픽이 열릴 것이고 행사는 더욱 더 호화 찬란할 것이며 기록은 경신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발달한

紙上法醫

한 때 유명한 운동선수였던 제임스가 자기 마누라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 자기보다 나이가 10년 이상 밑인 40대 초반의 마누라가 하는 행동에 대해, 그는 늘 꺼리워했으며 때로는 질투까지 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칼에 찔린 그녀는 곧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에 실려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심한 허탈 상태에 있었고 맥박이 거의 짚이지 않았다. 응급실 의사들이 외과 수석레지던트의 도움을 청했다. 수석레지던트가 그녀를 검사하니, 그 상처가 심장을 찌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는 두가지 대응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게 했다. 하나는 환자를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는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흉부외과 의사에게 연락을 하여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환자의 심장에서 계속 출혈을 하고 있으니, 그녀의 상태는 죽기 직전이었고, 조금도 더 기다릴 수가 없었다.

수석레지던트가 좀 주저앉은 결정을 내렸다. 환자를 급히 수술실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스스로 심장수술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가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심장수술을 견학한 적이 몇 번 있었고, 심장수술을 하는 데서 간단한 조수 역할을 한 적은 있었으나, 자기가 직접 심장수술을 한 경험은 없었다. 그러나 막 죽어가는 환자를 본 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심장에 있는 자창을 꿰맸다. 정말로 대단한 결정이고 조치였다.

다행히 환자의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되어 건강이 나날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니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얘기도 할 정도가 되었다. 그 수석레



대답을 아는 사람

노용면(55, 대뉴욕)

지던트가 어느덧 그 병원의 영웅이 되었다. 병원 경영진이 처음에는 그 레지던트가 취한 처사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했으나, 환자의 회복상태를 보고, 모든 사실들을 덮어 두기로 했다. 그러다가 환자의 상태가 놀랄만큼 좋아지니, 병원이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외과과장도 처음에는 그 레지던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이름난 운동선수였던 남편은 그녀와 두 번째로 결혼을 했고, 그에게는 전처에서 난 장성한 아들이 둘 있었다. 사건 후 그는 상해죄로 수감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검사를 찾아가, 아버지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그들은 양어머니인 환자에게 찾아와서 아양을 부리면서 아버지를 도와 달라고 했다. '아버지가 실수로 한 것인데' 하면서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그전에는 그들이 양어머니에게 아주 고약했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수술을 받으지 3주일이 되는 날 그녀가 갑자기 숨이 차다고 하더니,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날 밤에 사망했다. 병원기록을 보니, 죽기 전날 경한 기관지염 증세가 있어 감기약을 들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시체 부검을 하니, 수술을 받은 심

장의 자창은 잘 치유되어 있었다. 그리고 폐에는 아주 경한 염증소견이 있었다.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할 정도로 경한 염증이였다. 나는 그녀의 사망원인을 심장자창 후에 생긴 기관지폐렴 합병증(Stab wound of heart followed by bronchopneumonia)이라 했고, 그것을 타살이라고 분류했다.

가해자의 죄목이 상해죄에서 살인죄로 바뀌었다. 재판은 주 최고법원에서 열렸다. 내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그녀가 죽기 3주일 전에 심장을 찔리지 않았으면 기관지폐렴이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건강한 성인이 경한 폐렴으로 죽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심장의 자창이 죽음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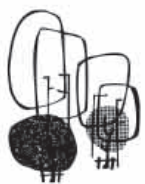
피고인측 변호사가 심장전문가와 병리의사 몇 사람을 불러다 내 증언을 반박하게 했다. 이 재판의 근본 목적은, 그녀의 죽음이 타살인가 아니면 자연사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데 있었다. 피고자가 왜 자기 처를 찔러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변호측 증인들이 법정에서 주장하기를, 환자의 심장에 있었던 자창은 잘 치유되어 있어 그녀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우연히 그녀가 호흡기 감염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칼에 찔렸건 안 찔렸건 누구나가 기관지폐

렴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 교묘한 증언들이었다. 그런데 검사가 이들에게, 건강한 젊은 여자도 경한 폐렴으로 죽을 수 있는냐고 묻자, 모두들 대답을 못했다. 여러 '전문가'들이 내 견해를 반대하는 증언을 했는데, 그들중에는 나와 같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병리학 교수도 있었다. 근래에 와서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설친다. 이들 대부분은 법의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자기 의견을 팔고 다니는데, 이것은 참으로 안된 실정이다. '의견 세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재판이 근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피고인이 이름난 운동선수여서인지, 이 사건에 대한 신문기사가 매일같이 발표되었다. 배심원들이 여러 증인들의 의견을 놓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후,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피고인이 살인 유죄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판결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여인이 왜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가 바로 닥타 로라고 했다. 여러 신문들이 이 사실을 크게 발표했다. 사건에 따라서는 정답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References:

- 1. Yong-Myun Rho: Forensic Medicine in Crimes of Violence,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44 : 2 1975.
2. Yong-Myun Rho: Murder or Suicide,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78 : 965 1978.
3. 노용면: 흉부 외상, 대한법의학회지 21 : 67 1997



벤쿠버 통신

김승업(60, 밴쿠버)

근황을 알립니다
지난 2002년말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을 은퇴하고 명예교수가 되었다. 명예교수가 되어서 얻은 특권은 매달 내던 캠퍼스 주차비가 면제된 것이다. 연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구는 계속하고 있지만 자신이 현역이 아니라 자각이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는것인지 참작한 심정이다. 다행이도 1998년에 수원 아주대학에 뇌연구소를 설립하고 2007년까지 석좌교수, 소장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밴쿠버와 수원을 왕래하는 10년이 되었다. 그간 뒤진 한국의 신경과학계에서 한국 최초의 신경과학 연구소로서 정부에서 매년 10억원 9년의 연구지원으로 명실공히 한국 신경과학의 중심이 되었고 50명이 넘는 석박사, 1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지금의 나의 심정은 "날은 저문데 갈길은 멀다"가 되겠다. 레이싱호스/경주마 처럼 앞만 보고 질주하다보니 이 나이가 되었다. 아직도 할일은 남았는데 시간이 없구나 하는 초조감이다. 다행이라 할까 그 아무개가 부럽구나 하는 남을 선망하는 것이 없어진 것은 플러스가 된다. 요지음 시작한 작업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John Steinbeck의 Cannery row를 번역하는 것이다. 서장은 끝나고 제 일장에 들어갔다. 영문학 부전공인 집사람이 치졸한 번역이라 한마디 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작품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하는 기쁨이 있다. 이 작품 마지막에 나오는 Sanskrit 시를 소개한다.

Even now/ I know that I have savored the hot taste of life/ Lifting green cups and gold at the great feast/ Just for a small and a forgotten time/ I have had full in my eyes from off my girl/ The whitest pouring of eternal light.

이 시간에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뜨거운 인생의 진미를 기뻐하고/ 크고 큰 잔치에서 녹색잔과 금잔으로 축배를 올렸음을/ 짧고도 잊혀진 시간에/ 나는 보았네 나의 여인의 눈에서/ 순백 영원의 빛이 흘러나옴을.

밴쿠버의 여름

벚이 먼곳에서 스스로 찾아오니 반갑고 즐겁다 (有朋自遠來 不亦樂乎)- 논어에 나온 구절인데 어제는 반가운 손님이 서울에서 찾아 왔다. 고등학교 동기가 기러기 아버지가 아닌 기러기 할아버지가 되어서 밴쿠버에서 면학하는 손자 손녀를 찾아서 이곳에 온 것이다. 이 사람 첫마디가 이거 천당 같구나- 이곳에서는 대낮에도 기온이 20도 전후이고 미풍이 쾌적하니 폭죽치는 서울에서 온 사람에게는 그러한 느낌이 있을 것이다.

저녁에 UBC 캠퍼스의 맥주집에 앉아서 기네스 맥주를 마시면서 옛날 학교 다니던 시절 이야기, 부산에서 고

생하던 이야기, 여러 친구 이야기해서 그칠줄 모르는 화제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열흘 가량 놀다 가겠다고 하니 이삼일에 한번씩 맥주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지난 봄의 폭풍으로 뒷뜰의 소나무 큰 가지가 낙하해서 지붕이 손상되고 빗물로 침실이 역망이 되었다. 보험회사가 고쳐 주겠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 하였던 바 집을 이곳 저곳 옮기고 일들이 그렇게도 느려서 옛날 피난 시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60년 넘는 집 에다 정원에 300-400년 넘는 red wood, douglas fir, cedar, pine들이 줄 지어 있어서 할일이 많다. 노년에 마당 일 하

기도 고되고 하니 큰마음을 먹고 콘도로 이사 가려 하나 아직 그 용기가 없다. 이곳 밴쿠버는 위도가 만주의 하르빈 정도여서 여름에는 9시반 까지 밝다. 기후가 좋은 이유는 하와이 근방을 통과하는 제트스트림이 북상해서 밴쿠버를 거쳐서 다시 남하하기 때문에 기후가 온화하고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 가지 않는다. 바다와 산이 가까이 있어서 풍광이 좋고 인심이 좋아서 (촌스럽다는 이야기)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되었다. 매일 오피스-연구실에 가서 책을 읽고 밀렸던 연구논문을 쓰는 요지음 이다.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농담골목'에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원고는 사양하오나 2세대의 영문원고는 환영합니다.

- 사양하는 원고: (1) 종교적인 내용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가급적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졸업 40주년 기념 일본 여행을 마치고

이 건 일 (68, 오하이오)

동기 여러분들 오랫동안 만나 아주 즐거운 시간 가졌었습니다.

남도 여행도 즐거웠었고, 일본 여행도 나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차에서 해방이 되었나 봅니다. 일본 여행은 5시에 일어나 6시 30분, 7시에 아침 먹고 8시 출발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고, 동기 한분의 급환으로 모두 걱정이 태산 같았으나 다행히 병세가 호전되어 무사히 여행을 마칠수 있었던 것을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남도 여행은 이 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여행이었고, 일본 여행은 오다 노부나가-토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을 위주로 하는 여행이었기에 이 여행의 테마는 '임진왜란'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 /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 /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0-1616 / 총무공 이순신 장군 :1545-1598 / 임진왜란 시작: 1592 /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1492

'오다 노부나가'가 쌀을 찢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떡을 만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것을 먹었다.'는 말처럼 임진 왜란은 오다가 다진 발판으로 토요토미가 일본을 평정한 후에 그 막대한 군사와 무기를 주체할수 없어서 일어난 전쟁 이라고 봅니다. 그가 죽자 일본군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일본에서는 가르친다고 합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거듭 승리를 거듭으로서 그 들의 공급로가 끊기고 퇴로 차단을 우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나라가 이 야망찬 나라의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과 조선 조정은 부패하고 무능하며 파쟁에 휘말린 멍청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슬픈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제아무리 훌륭한 용감했어도 혼자 힘 만으로는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갈수가 없었겠지요.

이설에 의하면 명나라 제독 진린이 이 장군에게 요세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선조를 쫓아내고 권력을 잡아라. 내가 도와 주겠다." 하였으나 그가 말을 듣지 않자, "전쟁이 끝나면 그대는 무능 부패한 관리의 무리로 가득 찬 조정에서 그대의 무공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의 손에 의하여 죽는다. 내가 신변 보장을 할테니 우리 명나라로 가자." 하며 권하였으나 이순신 장군은 이 또한 거절하고 맙니다.

또 다른 이설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은 그를 따라 명나라에 가서 숨어 살았다는 신빙성이 희박한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거의 자살에 가까운 죽음을 선택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아! 그가 만일 이성계 같은 야망을 가진 장수 였다면 우리 나라의 역사는 매우 달라 졌겠지요.

정치를 쇄신하고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부를 축적하였다면 300여년 후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Hind sight is 20/20(뒤로 돌아 보는 시력은 2.0 이다.)' 라는 영어의 표현대로, 역사란 나중에 뒤돌아 보며 이야기 할수는 없으며 역사에 가정법이란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일본 여행후에 느끼는 이 씁쓸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권 후 250 여년간의 평화시기를 이용하여 국부를 축적하고 메이지 유신을 거친후에 재빠른 서양 문물, 제도의 도입으로 근대화를 이룩하고 세계 열강의 대열에 오를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왜 못 하였는지요? 이순신 장군 아니면, 광해군, 최소 정조 정도라도 제대로된 정치를 펼수 있었으면 어떠 하였을까 하고 상상 해봅니다.

일본은 제가 생각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 였습니다. 잘 점돈 된 거리, 그 청결함, 질서, 예의 바른 사람들. 경적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교통 질서, 선진국 다운 시민 의식. 그러나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게 좀 위축되어 있는 듯 하고, 활달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사무라이들이 권력을 잡고, 전쟁과 살육이 다 반사로 일어 나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 일반 서민들은 관리의 말에 무조건 순종 하고 길에서 만나는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들에게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쿄 호텔에서 만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명령에 따라 기도하고 체조하고 일제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을 보며, 참 겁나는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50 히라카나, 50 카다카나, 수 만자의 한자를 습득 하여야 하면서도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운 나라,

좁은 도로를 넓히려고 연구하다 국민 들을 교육하여 좁은 도로에서 서로 양보하며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는 편이 더 싸게 치이며 또 국민들이 관

공서의 말에 잘 순종하니 그리하자고 하여 아직도 좁은 도로를 운영하는 나라, 언제고 또 어떤 선동 선전에 능한 자가 지도자로 나오면 과거를 되풀이 할수 있는 그런 나라 일본이 겁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겁이 납니다.

돌아온 서울은 예전 보다는 좀 나아진듯 하였으나 여전히 자동차 문화는 아직도 밀바닥 입니다. 끼어들기, 좀 천천히 안전 거리두고 운전 하면, 뒷차가 울리는 경적 소리.

그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한려수도는 잘 손질 하고 가꾸고 보존하여 홍보만 잘 하면 프랑스의 'Cote d'azur' 이나 이태리의 'Amalfi'에 비해 손색이 없을 것 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해안을 쓰레기와 울긋 불긋한 어지러운 힛집 간판으로 뒤덮고 있으니 이순신 장군께서 죽음으로 지켜 주신 이 강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못난 후손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떡하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수 있을 까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일제히 뭉치는 좋은 점도 있는 우리 민족 입니다. 유치원 부터 공중 도덕, 교통 질서, 청결함, 인사법,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을 열심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란 개념 보다 민족이란 개념이 우선 하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외국인이 쓴 글을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들면 민족을 위해서라도 나쁜 점은 고쳐 나가야 할 일 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행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며, 자기성찰, 반성의 기회를 줍니다. 이 일본 여행 역시 나에게 우리는 무엇인가,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생각

나 두 섭(73, 남가주)

세상에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의 하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아버지는 주장하기 보다는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관심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수도 많다.

간증을 한다고 하는 분들을 여러번 들었는데 많은 경우에 자기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자기의 아버지가 얼마나 안좋은 분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듣고는 한 아버지로써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있어도 나쁜 아버지는 없다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다. 지위고하, 빈부, 학력, 교양의 유무를 떠나서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다.

이런것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려 없는 판단일 것이다. 자기에겐 고생이 되어도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나를 비롯한 모든 아버지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그당시에는 별로 신경써서 읽어 보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편지

를 쓸때 나의 장하고 중한 아들이라는 서두로 시작하였다. 나는 장하지도 중하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보인 것이다. 이것은 모든 아버지들이 자기의 자식을 보는 시각일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들을 자식으로써 또 그렇게 대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어렸을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았다.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았고 남의 아버지들처럼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도 않았고 어머니에게 내 생각만큼 잘 해 주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나이에 아버지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쉬운 것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자식들을 장하고 중하게 생각했고, 물질을 절약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고, 또 가정을 잘 사랑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어렸을 때는 불평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겠는가?

훌륭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훌륭하게 교육하는 것도 교육이지만 자기의 바람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간접적인 교육이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한다면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감사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농담골목

유태인과 중국인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태인이 말하기를 하와이 진주만을 중국인들이 폭격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인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중국인이 아니고 일본인들이었다고 하니, 유태인이 말하기를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중국인이 말하기를 타이타닉호를 유태인들이 침몰케 했다고 했습니다. 유태인이 타이타닉호를 친 것은 빙산이었다고 하니 중국인이 iceberg와 Goldberg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면)

영국 시내에서 한 젊은이가 비칭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그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관이 상관에게 그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상관이 곧 의사를 불러 그를 진찰케 했습니다. 의사가 "He is not drunken, but drugged." 라고 했습니다. 상관이 이 사실을 담당 경찰관에게 알리니, 그가 "Of course he was drugged, I drugged (dragged가 아니라) him for three blocks."라고 했습니다. (면)

세 쌍둥이를 낳은 산모에게 친구가 축하인사를 하러 왔다. 산모는 친구에게 세 쌍둥이는 만년에 한번 꼴로 생긴다는 의사의 말을 자랑스럽게 전해 주었다. 그러자 친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애, 넌, 그럼 집안 일은 언제 했니?" (이덕승)

로맨스의 수학

- 현명한 남자 + 현명한 여자 = 로맨스
- 현명한 남자 + 우둔한 여자 = 정사
- 우둔한 남자 + 현명한 여자 = 결혼
- 우둔한 남자 + 우둔한 여자 = 임신 (行)

울밑에 선 봉선화 영어바람 불면...

언더 펜스 스탠딩 봉선 플라워*/유어 품이 멜란콜리/롱 롱 삼어 씨즌 뷰티풀이 플라워링 타임/프리티 리틀 걸스/유를 웰컴 플래이드 투게더 *봉선화: Touch-me-not (오태희)

"나는 심장이 큰 남자가 좋아요."
"큰 심장은 위험해요."
"그래도 소심한 남자보다 나아요." (백)

여성 오르가즘



정 유 석(64, 캘리포니아)

여성 오르가즘과 두뇌

성교 중 여성이 오르가즘을 꾸미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그 주목적은 상대방 남자의 감정을 만족시키거나 사정을 빨리 유도하기 위함이다. 남녀가 사실 클라이맥스에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상당히 드물다.

남자는 보통 성교할 때마다 여성이 성적으로 만족시켜야 자신이 남성으로 강하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여자가 전혀 성욕이 없어 몸만 내어주는 경우라도 남자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오르가즘에 달한 것 같이 행동한다.

한편 여자도 흥분기에 들어갈 무렵 남자가 미리 사정을 끝내면 남자가 불안하지 않게 클라이맥스를 꾸민다. 이와는 반대로 남자의 발기 상태가 시원치 않거나 사정이 늦어져 꾸물거리는 경우 남자의 사정을 유도하기 위해 꾸며 행동을 하는 수도 있다.

체면은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여자가 오래 불감증이 있으면 남자에게 이런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면 오르가즘 연기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자를 빨리 끝나게 할 목적도 있다. 창녀들의 경우다. 창녀가 손님과 성교를 하며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손님이 빨리 일을 마쳐야 화대를 받고 판 손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 [해리가 켈리를 만났을 때](1989)의 켈리보다도 더 완벽하게 전문적인 연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뇌의 활동을 직접 측정하는 기구의 발달로 인해 여성이 클라이맥스에 대해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근래에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에서는 클라이맥스 때 나타나는 두뇌의 변화를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를 이용해 조사했다. 19세에서 39세 사이 남자 11명, 여자 13명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를 실험대상으로 했다. 동성연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실험 대상자 24명의 혈관에 특수염료를 주사했는데 이들은 두뇌 기능에 변화가 있으면 스캔너에 나타나게 되어있었다.

남성의 경우, 스캐너는 휴식기, 파트너의 손에 의해 발기된 기간, 그리고 파트너 손으로 유도된 사정 시 두뇌의 변화를 측정했다. 여성의 경우, 휴식기, 파트너의 손이 음핵을 자극할 때 오르가즘 동작을 일부러 꾸밀 때, 그리고 실제로 오르가즘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두뇌의 변화를 살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남성의 오르가즘 시 두뇌의 변화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스캐너가 두뇌의 활동을 조사하려면 적어도 2분의 시간의 필요인데 남성의 클라이맥스는 길어봤자 10초면 소멸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남성 피실험자에 대한 연구는 별다른 주목할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었다. 한편 여자에서 오르가즘을 가짜로 꾸미는 사이 의식적 행동을 관장하는 두뇌 피질에는 불이 계속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정말로 오르가즘에 도달했을 때 이 부분의 불이 꺼졌다. 그 활동이 정지된 것이고 쉽게 말해 잠시동안 아득하게 정신이 나간 것이다. 이 때 여성이 취하는 모든 극

렬한 신체운동도 무의식 하에서 진행되었다.

가장 뚜렷한 현상은 클라이맥스에 달하는 순간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지배하는 두뇌 속의 편도체(살구모양체, Amygdala)와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Hippocampus) 부위에 변화였다. 흥분기에 불이 조금씩 깜박거리더니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순간 불이 꺼져 활동이 정지되었다. 이 곳의 기능이 정지되면 두려움이나 스트레스에서 단절되기 때문에 결과로 여자는 마치 이런 주사를 맞은 직후 같은 극단적인 환율감을 최대로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클라이맥스에 달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 아무리 기막히게 연기를 해도 두뇌의 이 부위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PET를 사용해 두뇌활동 검사를 할 때 사지나 온 몸통은 아무리 움직여도 상관없지만 두뇌만은 스캐너에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그래서 남녀 모두에서 성기 접촉을 통한 실험은 시도할 수 없었다.

바이에그라는 남성의 발기 기능만 가능케 하지 오르가즘을 돕지는 않는다. 성교 전에 불안이나 긴장을 제거하는 약을 개발한다면 여성도 더 자주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포도주 한 잔만 마셔도 여성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어느 정도 경감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이 글은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2005년 6월 후반 런던 타임스, S.F. 크로니클, 그리고 가디언에 발표된 기사를 근거로 했다.)

여성 오르가즘의 빈도

의학사전에 의하면 [오르가즘]이란 성 행위시 흥분기가 극치에 달한 상태를 의미한다. 흥분기에 남녀는 모두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며 호흡이 가빠지는데 극치에 달하면 남자는 요도, 방광, 항문 부위에 자의로 통제할 수 없는 경련이 와서 정액을 체외로 사정되고 만다. 여성에서는 질, 자궁, 항문, 골반부위, 또는 경우에 따라 전신에 경련을 경험하는데 특히 질 외부 1/3에 통제할 수 없는 반복적인 경련이 온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사람도 있다. 그거야 우리 의사들은 학생 시절 공부만 잘 했으면 모두 잘 있는 사실이다.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순간 두뇌에서는 엔도르핀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 그래서 당사자의 쾌감이 전신으로 퍼지고 그 결과 따뜻한 행복감에 젖어 파트너의 가슴을 파고 들고 싶어지는 것이다.

남성에서는 사정이란 뚜렷한 현상으로 인해 오르가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여성에서는 오르가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 흥분기에 들어갈 무렵 남자가 사정해서 주저앉고 마는 경우, 실제로 경험하는 경우, 그리고 남자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꾸미는 경우까지도 있다.

오래되었지만 1989년에 나온 영화 [해리가 켈리를 만났을 때]는 대학 졸업 후 우연히 만난 해리(빌리 크리스털)와 켈리(맥 라이언)가 12년 만에 다시 만나 뉴욕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다.

해리는 남자는 여자가 오르가즘을 정말 느끼는지 또는 꾸미는지 절대로 안다고 주장하고 켈리는 남자는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면서 증명해 보인다면 서식당 손님들이 가운데 해리와 식탁에 마주 앉아 포크와 나이프를 잠시 잠시 먹기를 중단한 다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은 채로 가쁜 숨을 들이쉬기 시작하고 이것이 점차 가빠지더니 마침내 신음 소리가 터져 나오며 허벅지며 남자의 이름까지 부르다가 만족한 듯 큰 숨을 내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를 계속한다. 옆에 있던 한 중년 부인이 놀라서 눈을 치켜들고는 웨이트리스에게 "저 여자가 먹은 것 뭘지 몰라도 내게도 갖다 주세요" 라고 주문한다. (이 영화의 결말은 식상한 미국영화의 전형대로 두 주인공의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근래에 인간의 오르가즘 경험에 대해 영국의 서섹스 대학,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 대학과 시드니 대학에서 공동으로 16세에서 59세 사이 오스트레일리아인 남성 10,100명, 여성 9,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최근의 성 관계에서 남성의 98.4%, 여성에서는 68.9%가 오르가즘을 경험했다. 남성에서 오르가즘에 실패한 극소수의 경우는 틴에이지의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틴에이지와 50대에서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남성에서는 성교 시 사정을 할 능력은 기계

수입, 직업, 교육 정도 또는 종교 유무와 관련이 없었다. 오르가즘에 실패한 남자들은 성생활이 2년 이하인 경우, 섹스에 대해 너무 긴장한 경우, 그리고 정기적인 파트너가 아닌 일시적인 파트너와 성행위를 한 때였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요소가 오르가즘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그리고 직장이 있고 수입이 높을수록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성교보조수단(Sex toy)을 사용했을수록, 또 조사하기 한달 전 사이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성생활을 했을 때 절정에 도달하는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16세 전에 성 경험을 했던지, 성생활의 기간, 과거 성 파트너 숫자, 자위행위 유무, 인터넷에서 의설물을 즐기는지 여부, 또는 X로 판정된 비디오를 보았는지 여부는 오르가즘 빈도와 상관없이 없었다.

남자들은 질 성교에서 모두 사정할 수 있었지만 구강성교로는 80%만이 성공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달랐다. 전체의 50%만이 질 성교에서 오르가즘에 도달했으나 구강성교와 음핵 자극으로는 70%에서 극치에 도달했다.

이 연구는 오스트레일리아인 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여성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리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글은 2006년 10월 7일자 S.F. 크로니클을 비롯한 전국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참조했다.)

삼

노 승 국(70, 텍사스)

지식인과 지성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직 '력'자 돌림의 힘자랑을 즐기십니까
참된 삶에 원칙은 있어도 방식은 없습니다

아주 가는 줄을 긋는 삶의 귀결은
가변적 필연이었고
거기에는 축복도 저주도 없이
의지와 노력과 운의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각기 점수가 다른 못인간들과 부딪히는
그 외로움을 아십니까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스러지어도
항상 변치않는 참된 꿈을 아십니까

시계탑 편집위원회 초록

일시 및 장소: 2008년 9월 17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청해진 식당
출석자: 노용면, 김병석, 이희경, 허선행, 서인석 (불참: 서량)
이날 모임은 오래동안 출판위원의 한사람으로 수고해주신 송관호 동문을 위한 추도 특명으로 시작되었다.

유니온 출판사에서 인쇄되어온 원고들의 교정을 본후 토의 안건으로는 (1) 지난번 발행된 시계탑의 오타에 대해서였으며, 매번 반복되는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그쳤다. (2) 최근들어 시계탑 원고가 적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지역동창회 소식 및 동기들의 소식, 동문들의 동정이 더 많이 기고되게끔 권장하기로 했다. (3) 작고한 송관호 위원의 자리를 메꾸는 일을 토의한 결과 위원장이 이유찬 (64) 동문을 추천했으며 모두 동의했다. (4) 이번 시계탑 출판을 10월 4일에 있는 이사회를 마친후 이사회 초록을 기다려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5) 영문원고 게재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의 방침을 지속하기로 했다. 9시 30분에모임을 모두 마쳤다.

- 출판위원회 공고 -

이유찬(64)동문이 새로운 출판위원으로 입회했으며 앞으로의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
동문 여러분의 격려와 환영을 바랍니다.

2009 ANNUAL CONVENTION

July 4(Sat)~8(Wed), 2009
Ritz Carlton Hotel
Dearborn, Michigan
 Room Rate: \$125.00



많이 참석하셔서 미시간의 아름다운 여름을 즐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임원 올림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 www.snucmaa.us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